

[기획 간담회]

재난 속에 묻혀 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

일시 | 2010년 2월 25일(목) 오전 10시

장소 | 참여연대 3층 중회의실

공동주최 | 참여연대·경계를넘어

프로그램

[간담회] 참여연대 · 경계를넘어 공동주최

재난 속에 묻혀 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

- | | | |
|-------|------|---|
| 10:00 | 사회 | 이성훈 국제연대위원회 위원장 |
| 10:05 | 발제 | 불행한 만남과 위대한 전복: 대서양, 흑인, 혁명
최갑수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
| 10:55 | 지정토론 | 황준호 프레시안 기자
까밀로 경계를넘어 활동가
백남선 월드비전 긴급구호팀 팀장 |
| 11:25 | 종합토론 | |
| 12:00 | 폐회 | |

목차

[간담회] 참여연대 · 경계를넘어 공동주최

재난 속에 묻혀 버린 아이티의 과거와 현재 **아이티 재난을 보는 우리의 시각**

발제	불행한 만남과 위대한 전복: 대서양, 흑인, 혁명 / 최갑수	05
토론	아이티 사태, 무지와 왜곡과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 까밀로	29
자료	아이티 관련 읽을 자료 정리(참여연대 모음)	39
	(국) 구호 활동, ‘인권 없는 인도주의’의 한계 / 류은숙	
	(국) 아이티 구호? ‘역겨운 부채’ 탕감부터! / 류은숙	
	(영) No ‘Hope for Haiti’ Without Justice / Mark LeVine	
	(영) Disasters are Big Business / William Bowles	
	(영) U.S. Using Relief Mission As Pretext to Occupy Haiti Justice / Patrick	
	(영) Haiti, Again? / Phyllis Bennis	
	(영) Haiti at a glance (2006,2008) / World Bank	

불행한 만남과 위대한 전복 : 대서양, 흑인, 혁명

최 갑 수 / 서울대 서양사학과 교수

역사의 만남

역사 속에서 인간이란 어떤 유적(類的) 본질을 갖는 존재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언제나 사회적 관계의 총체이다. 말하자면 사람이란 본디 착하거나 악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사회적 관계에 처해 있느냐에 따라 선해지기도 하고 악해지기도 하는 법이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는 경구가 이를 말해준다. 그러기에 인간의 삶이란 다양한 만남의 연속으로 이뤄지며, 이 무수한 인간들의 개인사를 토대로 역사의 흐름이 형성되는 것이다. 물론 역사학은 삶의 여러 층위를 포괄하고자 하기에 단수의 개인보다는 복수의 사람들에 주목한다. 특출한 개인들의 역할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역사란 것이 온갖 차원의 집단들의 만남과 부딪힘으로 이뤄지게 마련이어서 그야말로 온갖 종류의 ‘사회성’의 복합체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역사 시기에 사람들은 문명의 차이와 관계없이 대개 복수의 정체성, 곧 혈연, 지연, 더 큰 단위의 종교, 문화, 정치 공동체 등에 근거한 교류망에 몸담고 있기에 참으로 다양한 만남의 교차로에 놓여 있는 셈이다.

만남의 종류 역시 다양하다. 청춘남녀가 맞선을 볼 수도 있고, 장터에서 가게주인과 손님으로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역사에서 주목하는 것으로 이런 의도적인 만남(외교사절, 의회, 정치집회, 유학, 성지순례 등) 이외에도 그야말로 우연히 서로 마주치는 온갖 종류의 ‘조우’(遭遇)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일련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한다. 모두가 서로 마주보는 것이로 되 우의를 나누기보다는 경쟁, 긴장, 대립으로 이어지기 십상이고, 가장 불행한 경우로 일방

이 다른 일방을 완전히 괴멸시키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결국은 양자 사이에서 어떤 주고받음이 일어나고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된다. 만남, 마주침, 충돌이 야기하는 호혜와 특히 아픔, 그리고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이라는 문제를 외면해서는 안 되지만, 승자와 패자 사이의 엇갈림 속에서 역전과 전복의 계기가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는 승리를 영속화하려는 온갖 헤게모니 장치들의 틈새에서 균열의 조짐을 읽어내야 하며, 과거를 침묵시키는 은폐된 역사에서 잊힌 행위자들의 목소리를 불러낼 수 있어야 한다.¹⁾

침묵의 카르텔과 혁명의 발견

인류 역사상 가장 불행한 만남의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16-19세기에 대서양을 무대로 하여 유럽 백인들이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가한 구조적 폭력의 절정인 노예제가 떠오른다. 구미의 연구자들이 노예제가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기원을 갖고 있다고 강변하고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실제로 노예를 포획한 것이 유럽의 무장 상인이 아니라 아프리카의 토착 지배층이라고 지적한다고 해서, 대서양 가축노예제의 역사적 특수성(극단성)을 가릴 수 없다. 이 시기에 최소한 1천 2백만 명의 흑인들이 노예로서 대서양을 건너 아메리카로 간 것으로 추산되는데, 노예무역의 절정기는 18세기 마지막 20년간이다. 이 대서양 노예제의 본질은 대농장에서 열대작물을 키워 수확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노예노동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극단적인 노동착취와 이로 말미암은 인신파괴였다. 우리의 불행한 만남의 장소인 프랑스의 식민지였던 생도맹그(Saint-Domingue)의 경우, 노예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넘지 못했으니 이들의 여건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예들의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프랑스혁명 직전의 생도맹그에서 백인이 30,800명, 자유유색인은 24,800명인 반면에, 흑인노예는 전 주민의 90%에 육박하는 50만 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은 60-70%에 달했다. 생도맹그는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번영하는 식민지여서 혁명 직전 프랑스 대외교역의 거의 2/3를 차지했고, 설탕, 커피, 원면의 유럽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했다. 높은 이윤 - 상상을 절하는 노동 강도 - 계속적인 대규모 노예수입 - 아프리카 출신 노예의 막대한 비중의 순환이 바로 18세기 생도맹그 노예제의 특질이다. 노예의 높은 인구비중은 그 자체만으로 노예반란의 공포를 자아내 극단적인 폭력통제를 낳았으며 이에 수반하여 인종주의라는 헤게모니 장치가 맹위를 떨쳤음은 말할 나위도 없다.²⁾

1)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5)

2) 간단한 국내 소개로는 이광호, 「아이티혁명과 자급적 소농체제」, 『사람』 29호(2008), 287-308쪽 참조. 노예제 전반에 대해선 여전히 Eric R. Wolf, *Europe and the People without Histor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대서양 노예제에 대해선 이른바 ‘삼각교역’을 통하여 국내에도 꽤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노예제가 가장 혹독하게 작동했던, 가장 번영하는 식민지였던 생도맹그에서 흑인노예들이 대규모 반란을 일으켜 노예제를 폐지하고 프랑스, 영국, 에스파냐의 군대, 최종적으로 막강한 나폴레옹의 군대를 물리쳐 새 나라인 ‘아이티’(Haiti)를 세웠다는 사실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으며, 구미의 역사 개설사들은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 더욱이 식민 본국인 프랑스 사학계에서 이 노예혁명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제한적이며, 프랑스혁명 200돌을 기념하여 나온 주요한 프랑스혁명사 사전들에서 이에 대한 항목들은 아예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혁명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 이 위대한 혁명인 ‘아이티혁명’(Haitian Revolution; 1791-1803)에 대해 서방학계는 왜 침묵으로 일관해 왔을까?)

근저에는 서구의 세계에서 인종주의, 노예제, 식민주의를 에워싼 침묵의 카르텔이 놓여있다. 이 가운데 인종주의는 노예제의 현실을 가리고 식민주의를 정당화해주는 구실을 한다는 점에서 최종 심급의 담론체계라고 할 수 있다. 흑인은 인간존재의 대연쇄에서 최하의 위치를 차지한다. 흑인들은 나쁘게 행동하기 때문에 열등하며, 열등하기 때문에 노예화되었다. 이들은 정상적인 인간의 본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따라서 자유의 의지도, 저항의식도 갖고 있지 못하다. 이런 하찮은 노예들이 5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를 조직하여 당대 최강인 영국, 프랑스, 에스파냐의 군대를 물리쳤다니, 과연 이를 믿을 수 있겠는가! 과학의 외양을 한 인종주의는 19세기에 오히려 더 강화되면서 서구 인식의 포락선을 설정해주었고, 아이티혁명은 사유 불가능한, 따라서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 되었다. 독일의 한 철학자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치에 의한 유대인 대학살을 목도한 후에 “아우슈비츠 이후에 시를 쓰는 것은 야만”이라고 갈파한 바 있다. 문명 유럽의 야만행위를 통탄한 것이다. 하지만 그를 포함한 서구의 진보적 지식인들 가운데 참혹상에서 오히려 홀로코스트를 능가하는 대서양 노예제에 대해 그런 절규를 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진정으로 문제된 것은 야만행위 자체가 아니라 어떻게 문명화된 유럽인(나치 독일)이 같이 문명화된 다른 유럽인(유대인)을 대량 학살할 수 있었느냐 하는 점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아이티 외부에서 아이티혁명의 역사서술은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는다. 하나는 배제의 전략이다. 이는 일반 개설서의 수준에서 나타나는데, 역사에서 노예혁명의 존재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평범화 전략이다. 이는 주로 전문연구가 집단에서 나타나는데, 사건의 특질과 급진성, 혁명성을 지워버리는 구실을 한다. 하지만 이런 침묵은 역설적인 방식으로 동시대인들

Press, 1982)가 유효함.

- 3) 아이티혁명에 관한 국내 소개로는 C. L. R. James, 『블랙 자코뱅: 투쟁 루베르튀르와 아이티혁명』 (우태정 역, 펄맥, 2007)과 이에 대한 서평, 최갑수, 「프랑스혁명과 아이티혁명 그리고 투쟁 루베르튀르」, 『프랑스사연구』 17집(2007), 237-251쪽 참조.

뿐만 아니라 후세대에게 아이티혁명이 얼마나 심중한 의미를 갖는가 하는 점을 웅변해준다. 아이티혁명에 대한 침묵은 아이티나 노예제 자체보다는 바로 서구의 문제이기 때문이다.⁴⁾

나는 아이티혁명의 존재를, 프랑스혁명을 ‘인권혁명’의 시각에서 탐색하는 과정에서 발견하였다. 주지하다시피 프랑스의 ‘국민공회’는 1794년 2월 4일에 노예제의 폐지와 노예무역의 금지 등 노예의 해방을 선언했다. “국민공회는 흑인노예제를 모든 식민지에서 폐지한다고 선언한다. 따라서 식민지에 사는 남성은 피부색의 차이에 관계없이 모두 프랑스 시민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권리를 향유한다고 결정한다.” 사실 당시 프랑스에서 식민지의 대농노예경영이 갖는 막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뿌리 깊은 인종주의의 편견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선언은 민중혁명의 예외적으로 낙관적인 분위기를 고려하더라도 참으로 감동적이다. 1789년 8월에 국민제헌회의가 ‘인권선언’ 제1조를 통해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고 선언했을 때만해도 인간의 범주에서 흑인들은 제외되어 있었다. 이후 혁명의 진행과정에서 1794년 여름에 로베스피에르파가 몰락할 때까지 시민권의 개념이 확대되고 기본권의 내용이 풍부해지는 ‘급진화’가 이뤄졌고, 노예해방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는 프랑스인들이 영국혁명이나 미국혁명과 비교하여 프랑스혁명의 보편성을 자랑할 때에 흔히 내거는 증거의 하나이다. 영국의 ‘권리장전’(1689)이 기껏 영국인의 전통적 자유의 호소에 그쳤고 식민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영국의 입헌적 전통에 호소하다가 자연권을 내세워 ‘독립선언’(1776)을 했지만 흑인을 배제한 백인의 권리만을 주장하여 이를테면 건국의 아버지 가운데 꽤 진보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제퍼슨(Thomas Jefferson)이 노예소유주였음을 고려한다면, 탄탄한 사실적 근거가 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⁵⁾

하지만 직립하여 들여다보면, 실상은 사뭇 다르다. 농장소유주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마시아크 클럽’(Club Massiac)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흔히 노예해방에 앞장섰다고 알려진 ‘흑인우애협회’(Société des amis des Noirs)의 주장이란 극단적인 착취구조를 식민지에서 노예의 사회적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개혁하자는 것에 불과했으며, 혁명기에 협회의 구체적 목표는 유산자유유색인에게 시민권을 인정해주자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실제 혁명의회는 이 제한된 목표와 관련해서도 갈팡질팡했다. 그만큼 식민지의 이해관계는 혁명가들조차도 사로잡았다. 급진민주파의 대명사인 로베스피에르(Maximilien Robespierre)조차도 이 문제에 무심했으니, 국민공회가 앞장서 노예제를 폐지하고 노예를 해방시킨 것은 아니었다.⁶⁾

4) 배제와 통합의 담론 질서에 관한 구체적 연구로는 최갑수, 「홀로코스트와 기억의 정치적 이용: 그리고 유럽중심주의」, 홍성태 편, 『이스라엘과 미국의 중동정책』 (문화과학사, 2007), 207-263쪽 참조.

5) 최갑수, 「1789년의 ‘인권선언’과 혁명기의 담론」, 『프랑스사연구』 제4집 (2001년 2월), 5-43쪽.

6) Yves Benot, *La révolution française et la fin des colonies* (Paris: La découverte, 1988)

그렇다면 해방의 동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우선 지적할 것은 생도맹그라는 최상의 먹잇감을 영국과 에스파냐가 노렸고 직접 개입했다는 점이다. 이 국제적 갈등이 아이티혁명의 원경(遠景)을 이룬다. 여기에 왕당파와 공화파의 갈등이 겹쳐졌다. 생도맹그를 지키기 위해 혁명 정부의 판무관으로 현지에 부임한 송토낙스(Léger F. Sonthonax)는 영국군과 왕당파에 맞서 먼저 자유유색인들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더니 곧경에 몰리면서 급기야 반란노예들에게 1793년 8월 29일에 자유와 해방을 약속하였다. 그러니까 국민공회의 결정이란 실상 판무관의 약속을 추진한 것에 불과했다. 생도맹그에서 결국 영국과 에스파냐를 몰아낼 수 있었음은 물론이다. 따라서 궁극적인 동력은 1791년 8월에 반란을 일으켜 이미 섬 안에서 독자적인 세력으로 존재했던 흑인노예군이다. 1794년 5월에 흑인군의 최고 군사지도자인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 1743-1803)가 프랑스군으로 합류하면서 전세가 결정적으로 뒤바뀌었음은 이를 반증한다. 요컨대 노예들이 직접 반란을 일으켜 해방을 얻어냈을 뿐만 아니라 ‘인권혁명’의 보편성이라는 것도 노예혁명이 없었더라면 프랑스인들이 주장하는 그런 수준에 결코 이를 수 없었던 것이다. ‘인권혁명’을 완성시킨 것이 아이티혁명임은 너무도 명백하며, 그렇다면 이는 이 참으로 보잘 것 없다는 노예들이 ‘근대성’의 형성에서 주체로서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했음을 웅변한다. 이는 진정 근대세계의 형성에 대한 기본관점 자체의 수정을 요구하는 정도의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⁷⁾

‘아이티혁명’의 경이로움과 새로움, 그리고 문제제기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1) 해방이 되어 프랑스의 시민이 된 이 흑인노예들은 해방령을 취소하여 식민지에 노예제를 재도입하고 이를 근거로 아메리카에 식민제국을 건설하려는 야심의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1802년 2월에 보낸 6만 명이 넘는 정예군에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고 결국 독립을 쟁취하였다. 이 과정에서 루베르튀르를 비롯한 걸출한 군사지도자들이 나타나 독립의 기틀을 닦았다. 이들은 최대 5만 명의 군대를 지휘했는데, 이러한 지도력과 혁명의 성공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2) 아이티혁명의 조숙성(早熟性)은 근대성의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확대하고 심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아이티는 흑인들이 혁명을 통해 나라를 세운 유일한 예일 뿐만 아니라 최초의 유색인 식민혁명이다. 아이티는 1804년 1월 1일에 독립을 쟁취하면서 대농장농업생산체제의 유산 위에서 자립경제를 세워야 했을 뿐만 아니라 새 국가건설을 꾀해야 했는데, 당시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신생국들과는 달리 본받을만한 모범국가도, 적용할만한 경제발전 이론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근대성 자체가 이제 막 형성 중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아이티는 노골적이고 무자비한 국제적 고립 속에서도 19세기에는 상당한 성취를 이루었다. 당시 유럽 중동부의 대부분의 나라가 여전히 전제정이라는 정치적 후진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고려한

7) 간단한 소개로는 Laurent Dubois and John D. Garrigus, *Slave Revolution in the Caribbean 1789-1804* (Boston: Bedford, 2006) 참조.

다면, 이 성취는 더욱 돋보인다.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했을까? 3) 아이티혁명은 프랑스의 식민체제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하고 독자적 정치체제와 소농경제에 입각한 새로운 사회구조를 이룩했을 뿐만 아니라 유럽-아메리카-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대서양 삼각무역체제를 심대하게 변모시켜 자본 축적의 방식과 논리를 바꾸게 했다. 그것은 단지 주요 열대작물공급지로서 쿠바를 생도맹그의 대체지로 만드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전 아메리카에 노예반란과 혁명의 기대감을 높여 노예제의 관리비용을 크게 증대시킴으로써 노예무역 및 노예제의 폐지를 불가피하게 했다. 그 결과는 참혹했다. 신생국 아이티는 백인 주도의 대서양 국제질서에서 '용서할 수 없는 대상'으로서 철저한 국제적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피부색의 장벽'(color line) 너머의 존재라는 것이다. 프랑스는 1825년에 엄청난 액수의 보상금을, 그것도 돈이 없는 아이티에게 차관의 형식으로 빌려준 돈을 되받은 뒤에야, 미국은 '남북전쟁'이 끝난 1867년이 되어서야 아이티를 승인했다. 혁명적 탄생의 의미를 부정하기 위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신생국 아이티는 출발부터 빛을 떠안게 되었고, 이는 두고두고 부담이 되었다. 아이티는 그래도 19세기에는 잘 버티어냈지만, 미국은 결국 20세기 초반에 무력으로 아이티를 점령(1915-1934)하여 무너뜨렸다. 이 오래고 끈질긴 공세로 현재 아이티는 '실패국가'(failed state)의 한 전형이 되어 중남미 최빈국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구미 중심의 근대세계 체제의 속성과 작동원리를 새롭게 이해하게 되며 구미 열강의 역량에 대한 더 섬세하고 정교한 감각에 이르게 된다.⁸⁾

불행한 만남에서 역사의 주체로

우리의 문제의식으로 돌아가자. 생도맹그의 노예들은 어떻게 해서 '불행한 만남'을 업어치기 한판으로 뒤집어 당당하게 새 나라를 세우는 '위대한 전복'에 이를 수 있었을까? 비참한 지경에서 글자조차 모르는 노예들이 유럽인들이 설정한 '문명적 기준'에 이를 수 있었던 역량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 최근에 이루어진 일련의 연구들은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과정으로서의 역사 속에서 모든 인간집단은 다음의 세 차원을 갖는다. 1) 우선 그들은 전체 사회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한다. 이러한 위치는 언제나 그들이 지닌 사회적 관계의 총합으로 나타나며, 물질적 조건만이 아니라 의식을 규정한다. 그것은 참으로 이들의 삶의 포락선을 설정해준다. 2) 아울러 이들은 특정의 역사적 상황과 끊임없이 만나면서 역사적 행위자가 된다. 위상적 존재가 모두 행위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이론적으로 역사

8) David P. Geggus, ed. *The Impact of the Haitian Revolution in the Atlantic World* (Columbia: University of South Carolina Press, 2001)

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집단을 상상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역사적 특수성은 언제나 꿈틀거리고 도약할 수 있는 행위의 잠재적 역량을 함축한다. 노예들이 언제나 탈주와 반란을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살아있다는 바로 그 존재성으로 그럴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 법이다. 3) 모든 역사행위자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역사에 대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갖고 있다면, 그는 역사의 주체로 부상할 수 있다. 주체적 역량이란 역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주인임을 인식하고 스스로의 역사를 서술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런 분석의 틀을 우리의 주인공인 1780-90년대의 생도맹그의 노예들에게 적용해보자. 우선 이들은 존재조건으로 말미암아 아무리 대농장에 고립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대서양을 무대로 하는 거대한 관계망의 일부가 된다. 대서양이 유럽-아프리카-아메리카를 연결하는 삼각무역의 터전임은 강조한 바 있다. 상품의 오고감은 그것과 함께 인간들과 이들의 삶과 이념과 사상의 흐름을 수반하게 마련이다. 게다가 이 시기의 대서양에서 인간은 상품인 동시에 상품의 주인이 아니었던가! 이 세계가 균질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주된 행위자로서 유럽은 막 등장하는 근대국가를 통해 이 거대한 세계를 순치하려고 했지만, 이들의 복수적인 ‘대서양 체제’는 구멍 송송 뚫린 치즈와 같은 것이었다. 그리고 종속적인 행위자로서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아프리카인들(현지의 지배세력과 함께 아메리카로 간 노예들)이 있었다. 최근의 연구는 이 대서양 공간, 특히 그 핵심적인 일부인 카리브해 지역이 출판물만이 아니라 소문이 엄청난 규모와 빠른 속도로 움직이던 ‘격동의 장’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가 당시 프랑스에 존재했다고 설정한 ‘공공영역’만큼 조직화되고 밀도가 높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좁고 응집된 공간적 특수성을 지닌 카리브해 지역에 낮은 차원이거나 어떤 ‘공공영역’이 존재함을 시사한다고 하겠다.⁹⁾

그러면 생도맹그의 노예들이 처했던 역사적 특수성이란 무엇인가? 이들을 행위자로 만든 요인은 무엇일까? 생도맹그에는 크게 세 부류의, 자세하게는 적어도 여섯 부류의 위치자들이 존재했다. 총독과 해군지사를 정점으로 하는 본국을 대표하는 관료집단, 부유한 농장주와 대상인으로 이루어진 ‘대백인’(大白人, *grands blancs*), 농장감독, 중소상인, 온갖 종류의 피고용인, 기타 빈민으로 이루어진 ‘소백인’(小白人, *petits blancs*), 물라토와 흑인자유민의 ‘유색인’, 그리고 현지 태생의 노예(*créols*)와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들(*bossales*). 생도맹그의 특수성의 하나는 경제적 변영으로 인해 백인과 유색인을 포함하는 ‘문필적 공공영역’이 매우 역동적이었고, 본국정부의 ‘독점체제’로 인해 강한 정치적 성향을 지녔다는 점이다. 유념해서 볼 대목

9) Laurent Dubois, "The French Atlantic", Jack P. Greene and Philip D. Morgan, eds. *Atlantic History: A Critical Appraisal* (Oxford University Press, 2009), pp. 137-161.

은 자유유색인들의 구실이다. 이들은 대부분 교양을 지녀 계몽사상을 흑인세계에 전해주는 전도체의 역할을 했다. 그러기에 루베르튀르가 레날(Raynal)의 저서에 나오는 ‘검은 스파르타 쿠스’에 관한 구절에서 자극을 받았다는 신화가 만들어졌다.

하지만 노예들은 수신자에 그치지 않았다. 대서양을 통합된 지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것이 곧 유럽을 모든 지적 생산의 중심으로 보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이들은 글을 읽을 줄 몰랐고 오직 말을 통해 공공영역의 종속적 일원이 될 수 있었다. 유럽적 기준에서 보면 당연히 일원이 아니다. 그러나 이들은 역사적 특수성으로 식민지 공공영역의 한계를 넘어섰다. 흔히 계몽사상의 보편성을 운위한다. 실제로 계몽사상가들 가운데 급진적이라고 할 수 있는 레날(Raynal), 디드로(Diderot), 특히 콩도르세(Condorcet)는 노예제와 노예무역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 연구는 이런 비판이 인종주의의 근거를 겨냥한 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얼굴을 한 노예제를 위한 호소에 불과했음을 폭로한다. 마치 계몽사상이 진보와 함께 ‘후진성’의 개념을 만들어 유럽의 우월주의를 정당화했듯이, 그 보편주의는 인종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특정의 ‘타자’가 자연권을 향유할 수 없는 무능력을 갖고 있다고 하여 배제를 정당화하는 것이었다.¹⁰⁾

따라서 우리는 계몽사상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안 되며, 그것이 민주주의와 인간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인종주의와 위계적 사고의 바탕으로 작용할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 최근 아프리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들이 유럽과는 다른 성격의 군주제적 공화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독자적인 정치문화를 이미 아프리카 현지(특히 콩고 지역)에서 체득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콩고 출신의 노예들이 생도맹그 노예 가운데 18세기 후반에 과반수에 달했음에 비추어 단순한 가설로 치부할 수 없게 만들지만¹¹⁾, 이제까지의 증거만 갖고서도 우리는 유럽의 사상이 반란자들을 고무시켰다기보다는 오히려 이들이 그 공화주의를 활용하고 더 나아가서 변형시켰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대서양 공공영역’에 더해 ‘흑인 계몽사상’(Black Enlightenment) 내지 ‘노예 계몽사상’(enslaved Enlightenment)의 가능성을 다음과 같이 탐색해 볼 수 있다. 이른바 ‘신대륙의 발견’으로 대서양에 인간성과 자연권을 새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났다. 아메리카

10) Michel Duchet, *Anthropologie et histoire au siècle des Lumières* (Paris: Albin Michel, 1971)

11) 콩고 지역이 1665년 이래로 왕위계승문제를 둘러싸고 18세기 말에 이르도록 만성적인 내전 상태에 있었다는 점, 이 지역에서 송출된 노예들의 대부분이 전쟁포로로서 전사 출신이었다는 점, 이들이 혁명 직전 생도맹그로 들어간 노예들의 절반을 넘었다는 점, 혁명 직전 생도맹그 성인 노예들의 60-70%가 아프리카 태생이었다는 점 등은 노예반란자들의 뛰어난 전투능력을 설명해준다. 현지 태생의 노예들이 프랑스의 전투 방식에 익숙했다면,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들은 콩고에서 일반적이었던 소부대 위주의 게릴라 전술에 능했다. 사실 몰라토 출신 지휘관의 지도력과 노예 병사의 뛰어난 전투능력이야말로 노예혁명 성공의 밑거름이었다. John K. Thornton, "African Soldiers in the Haitian Revolution", *Journal of Caribbean History*, 25 (1991), pp. 58-80.

인디언, 아프리카인, 유럽인들의 마주침 속에서 정체성, 통치, 주체성, 시민권에 관한 새로운 사고방식이 출현했다. 이 새로운 사고방식은 유럽과 식민지에서 교육받은 엘리트들의 기록에 압도적으로 의존했지만, 또한 읽고 쓸 줄 모르는 이들을 통한 의미와 사상의 순환에도 힘입었다. 대서양 세계의 노예민들은 노동뿐만 아니라 저항을 통해 통치의 문제를 제기하고 존엄성을 주장하고 노예화의 정당화를 부정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제안했다. 유럽의 사상가들은 노예제에 대한 비판을 가능하게 하는 자연권을 주장했고, 노예들의 고통을 직접 목격한 식민지 관료들을 움직여 농장주의 권력 남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행하게 했다. 개혁가들의 활동은 제한적이고 궁극적으로는 노예 후손들의 노동력과 식민지의 생산력을 보존하기 위한 것에 불과했지만, 변화의 가능성을 열었다. 대서양 양안의 아프리카인들의 공동체에서도 프랑스에 준하는 전략과 사상에 관한 논의가 존재했다.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1790년대에 카리브해에서 발생한 일련의 혁명적 사태의 밑거름이 되었다. 우리는 한걸음 더 나아가 흑인노예들이 바로 이러한 문제제기를 통하여 계몽사상의 진면목인 급진적 보편주의를 완성했다고 본다.¹²⁾ 노예들이 역사의 주체로 새롭게 태어나는데 프랑스혁명의 발발 자체와 그 일련의 과정과 조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음은 물론이다. 프랑스혁명은 식민지에서 관료집단, '대백인', '소백인', 자유유색인 사이에 복잡한 제휴와 충돌의 정치과정을 개시하여 한편으로는 노예들이 끼어 들 수 있는 사회적 공간을 마련해주어 행위자로 불러내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예들에게 정치적 도제수업의 기회를 주어 역사적 주체로 발돋움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흑인노예들에게 결정적인 교육장은 반란행위 자체였다. 이들은 절대다수가 문맹이었고, 당시에 혁명은 너무도 발본적이어서 실제로 벌어지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인종주의의 윤리적 부당함을 고발하고 모든 인간에게 자기결정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직 혁명의 발발 그 자체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었다. 혁명은 그 과정 속에서 스스로를 만들어냈으며, 언제나 담론은 행동에 뒤처져 있었다. 아이티혁명은 궁극적으로 유럽이 설정한 존재론적 질서와 식민주의 체제에 행동으로 직접 도전한 것이었다. 아이티의 노예혁명가들은 프랑스의 혁명가들이 가진 이해관계와 이데올로기의 한계를 돌파하여 새로운 지평을 열고 '인권혁명'을 완성했다. 참으로 생도맹그의 흑인노예들은 역사적 특수성을 밀친 삼아 역사적 행위자로 일어섰고 반란과 혁명을 통해 역사적 주체로 우뚝 섰던 것이다.

12) John K. Thornton, "I am the Subject of the King of Congo: African Political Ideology and the Haitian Revolution", *Journal of World History*, 4 (1993), pp. 181-214; Laurent Dubois, "An enslaved Enlightenment: Rethinking the intellectual history of the French Atlantic", *Social History*, 31 (2006), pp. 1-14; Gene E. Ogle, "The Trans-Atlantic King and Imperial Public Spheres: Everyday Politics in Pre-Revolutionary Saint-Domingue", David P. Geggus & Norman Fiering, eds. *The World of the Haitian Revolution*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2009), pp. 79-96.

- 추천도서

C. L. R. James, 『블랙 자코뱅: 투생 루베르튀르와 아이티혁명』 (우태정 역, 필맥, 2007)

아이티혁명의 중요성은 그것이 “근대 최초의 성공적인 노예반란이었다”는 점에 있다. 저자는 혁명의 이념과 아이티의 흑인들(처음에는 노예 그러나 곧 시민이 됨)의 정치적 움직임 사이에 심원한 연관성이 있음을 입증하여 아이티혁명이 프랑스혁명의 핵심적인 일부였음을 보여 준다. 하지만 그는 혁명의회에서 힘의 역학관계가 변함에 따라 아이티에서 정치적 세력 사이에 구성과 전선이 바뀌고 여기에 식민본국만이 아니라 식민지 현장의 논리가 작용하여 왕당파와 공화파의 구체적 의미가 프랑스에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띠었음을 제시한다. 그 결과 우리는 아이티혁명에서 프랑스혁명과는 구별되는 자율성과 고유성을 발견하게 된다. 실로 이 책은 아이티혁명을 독자적인 개성을 가진 사회혁명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는데 성공하였다. 다만 투생 루베르튀르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아이티혁명에 대한 계몽사상과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또한 강조하는데, 하지만 70여년전에 쓰여졌음을 감안한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김명섭, 『대서양문명사』 (한길사, 2001) / 주경철, 『대항해시대』 (서울대출판부, 2008)

우리의 주제와 관련하여 김명섭의 책은 만남의 장소로서 ‘대서양’을 이해하는데, 주경철의 책은 근대초 시기의 노예무역을 이해하는데(특히 289-359쪽) 큰 도움을 준다. 두 책 모두 ‘세계화’와 ‘세계사’의 문제의식을 갖고 또 주경철의 책은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을 노린다. 아쉽게도 김명섭은 ‘대서양’을 여전히 진정한 의미의 만남의 장이라기보다는 유럽의 패권이 관철되는 ‘표준적 공간’으로 제시하며, 주경철은 서방학계의 주류적 해석이 압도적이어서 그런지 적어도 ‘노예무역’에 관해서만은 유럽중심주의를 완전히 탈피하지 못한다.

Michel-Rolph Trouillot, Silencing the Past: Power and the Production of History (Boston: Beacon Press, 1995)

저자는 역사에서 침묵이 네 차원에서 일어난다고 확인한다. 1) 사료의 제작: 과거에 일어난 모든 것이 기억되거나 기록되지 않는다. 이미 현실의 일부가 사건의 현장에서 망각된다. 2) 문서고의 구성: 역사 기록의 수집 및 보관의 과정에서 망각이 일어난다. 3) 사료의 선택: 이 과정에서 많은 당대의 증언들이 침묵을 강요받는다. 4) 역사해석: 주류적 해석이 만들어지며 이에 어긋나는 소수의 목소리는 역사서의 주변부로 밀려나거나 아예 침묵을 강요받는다. 저자는 이런 역사의 침묵이 어떠한 방식으로 일어나는지 아이티혁명과 콜럼버스의 역사서술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아이티혁명에 대한 서방학계의 침묵이 어떻게 행해지고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는지를 보여주는 필독서이다.

□ 아이티 역사 개관

콜럼부스의 '발견'과 에스파냐의 식민화

1492년에 콜럼부스는 히스파놀라 섬의 해안에 상륙하여 아이티의 북부 해안에 La Navidad (성탄절이라는 의미)라는 이름의 최초의 정착지를 세움. Taino Indian, 또는 Arawak로 불리는 원주민은 원래 히스파놀라를 Ayti 또는 Hayti(산이 많은 땅이라는 의미)로 부름. 원주민은 1492년 당시에는 적어도 수십만 명에 달했으나 1550년에는 150명만이 생존했고 결국 멸종했음. 강제노역, 혹사와 탄압, 질병이 주 요인임. 이때쯤이면 산토도밍고는 신세계의 에스파냐의 식민 가운데 더 이상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게 됨. 그 무게 중심이 멕시코와 페루로 옮겨짐. 하지만 산토도밍고가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등이 계속해서 접근의 기회를 노림.

생도맹그와 프랑스의 식민지경영

이미 17세기 중엽부터 프랑스인들의 식민과 정착이 히스파놀라 섬 서북부에서 진행됨. 1670년대에 이르면 섬의 서부 지역이 생도맹그라고 불리며 1697년의 라이스바이크 조약으로 섬의 서부 1/3이 프랑스에게 할양됨.

18세기 중엽에 이르면 생도맹그는 서반구에서 가장 이윤을 많이 내는 식민지가 됨. 프랑스혁명 직전에 생도맹그는 전세계 커피의 60%, 프랑스와 영국이 수입한 설탕의 40%를 생산하고, 프랑스 해외 교역의 40%, 해외투자의 거의 2/3을 차지함.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부가 노예제에 입각했다는 것임.

근대 아이티 사회와 그 여러 문제의 기원이 바로 이 노예제에 있음. 소수의 몰라토와 다수의 흑인노예. 노동강도가 카리브해 지역에서 최악이었음. 50만이 넘는 흑인 노예 가운데 소수만이 섬 출신이고 대부분은 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전사 출신의 흑인이었음. 매우 정교하게 구축된 인종과 계급이 교차하는 계서제가 등장함: 백인(grands와 petits), 혼혈과 자유유색인, 흑인노예(현지 태생과 아프리카 태생).

본국의 독점체제에 대한 백인대농장주들의 반발, 인종주의와 그것에 입각한 계서제의 강화, 따라서 백인농장주에 대한 자유유색인의 반발이 더욱 커짐.

아이티혁명(1791-1803)과 투생 루베르튀르(1743-1803)

도망노예들의 저항의 전통: 특히 마강달의 반란(1751-57). 약 6천명의 사망.

프랑스혁명의 발발과 함께 본국에 대한 농장주들의 반발, 자유유색인들의 시민권 문제를 농

고 백인들과 자유유색인의 갈등과 대립. 이들이 흑인노예들을 경쟁적으로 무장시키면서 드디어 1791년 노예반란이 발생함. 이미 혁명 초기에 흑인 1만명, 백인 2천명이 사망하고 농장 1천여곳이 파괴됨.

투생: 관대한 농장주 하에서 글을 읽힌 특권적 흑인노예에 속함. 비교적 늦게 노예혁명에 가담함. 생도맹그를 둘러싼 복잡한 국제 정세. 특히 영국과 에스파냐의 개입. 이런 속에서 생도맹그를 지키기 위해 혁명프랑스의 관무관들은(그 가운데 송토낙스) 흑인노예들에게 프랑스 공화국에 대한 충성의 대가로 해방을 약속함. 그리고 이것을 1794년 2월 4일에 국민공회가 추인함. 투생은 1793년 2월에 에스파냐 편에서 프랑스에 대한 저항을 계속했으나 결국 프랑스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1794년 5월에 프랑스 편으로 선회함. 이후 투생은 생도맹그 부총독, 생도맹그의 프랑스군 총사령관, 종신총독으로 계속 승진하면서 사실상 생도맹그의 실권자가 됨. 군사적 천재성, 뛰어난 국제감각, 대농장제의 유지, 프랑스의 배신, 프랑스 국내로 잡혀가 쥐라산맥의 골짜기 요새에서 사망함.

나폴레옹의 노예제 복귀 시도. 군대 파견. 그러나 흑인노예군의 최종 승리.

아이티의 독립(1804)

1804년 1월 1일, 아이티 독립. 서반구에서 두 번째 독립국가이자 최초의 흑인독립국가이며 유일한 성공한 노예혁명임.

데살린: 스스로 황제가 됨. 백인 학살. 대농체제 재도입 노력. 이를 위해 군대를 동원함. 군대의 정치개입 전통을 만들어냄. 독재정에 대한 몰라토들의 반발. 통합적인 정치계급의 형성에 실패함. 1806년에 데살린이 암살당함.

아이티의 분단

이후 아이티는 크리스토프의 왕국(북부)에, 페티옹의 공화국(남부)으로 양분됨. 북부는 강권 통치, 남부는 온건정치. 남부에서 대대적인 토지분배정책이 나타남.

부와예의 통일

부와예는 페티옹의 후계자임(1818). 1820년에 크리스토프가 사망하여 북부를 접수하여 통일함. 1822년에는 산토도밍고를 침략하여 장악함. 국제적 고립을 면하기 위해 배상을 요구하는 프랑스 정부의 요구에 응해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해 주기로 함. 1838년에 프랑스가 공식적으로 아이티를 국제적으로 승인하고 유럽 열강들이 뒤따름. 그러나 미국은 1862년이 되어서야 아이티를 승인함. 오랜 투쟁과 혼란의 마무리 시기로 오랜만의 휴식기를 제공함. 종신대

통령이 된 부와예에 대한 자유주의적 저항이 나타났으나, 결국 군부가 개입하여 '1843년의 혁명'이 나타나고 부와예는 자마이카로 망명함. 군부지배의 전통이 나타남.

불안정의 시기: 1843-1915

이 시기의 21명의 국가수반 가운데 오직 1인만이 임기를 제대로 다 채우고 3명은 임기중에 사망하고 1명은 대통령궁에서 폭사하고 1명은 독살당하고 1명은 피살당해 사지를 찢기고 1명은 사임하고 나머지 14명은 쫓겨남. 이런 속에서도 단속적으로 상대적인 정치적 안정기가 있었음: 솔루크(1847-59), 제프라르(1859-67), 살로몬(1879-88) 등. 크게 두 부류의 정치세력이 형성됨. 하나는 자유당 계통이고 다른 하나는 국민당 계통임. 전자는 물라토, 후자는 흑인엘리트층을 대변했음.

아이티에 대한 열강들, 특히 독일과 미국의 각축전. 역대 가장 뛰어난 대통령으로 평가받는 르콩트(1911-12)의 폭사 이후 급속히 정정의 불안이 나타남. 이를 빌미로 미국 해군의 진주가 나타남.

미국의 점령(1915-34)

미해군 제독 윌리엄 캐퍼튼이 실권을 장악하고 8년 임기의 아이티인의 대통령이 만들어짐. 계엄령. 재정권을 워싱턴이 장악함. 미군이 훈련시키는 군대를 창설함. 아이티인들의 저항. 민족의식을 고취하여 새로운 세대의 지식인들이 등장함. 인프라를 개선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없지 않으나 금융, 상업 등이 완전히 미국인들의 손아귀에 떨어짐. 미국은 대공황의 침체 속에서 주둔한 군대를 철수시킴. 점령을 결정한 것이 흔히 민족자결론의 지지자로 알려진 월슨 대통령이며, 프랭크 루즈벨트 대통령은 점령 당시의 해군차관이었고 아이티헌법의 작성자로 알려져 있음.

군부독재의 막간(1934-57)

1937년, 도미니카 공화국에 살던 수천명의 아이티인들이 트루이오 대통령의 지시로 도미니카 군인들에 의해 학살됨.

아버지 뒤발리에의 독재(1957-71)

군부가 주도한 선거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964년에 종신대통령이 됨. 악명높은 Tonton Macoute의 창설. 수만명의 학살 내지 망명.

아들 뒤발리에의 독재(1971-86)

19세의 나이로 후계자로 지명됨. 아버지보다도 더 잔인하고 무자비함. 1972년에 최초의 ‘보트 피플’이 나타나 아이티를 떠나 플로리다에 상륙함. 국제원조에 의지하여 섬유봉제업이라는 최초의 근대산업이 나타남. 반정부 노동운동이 나타나나 탄압을 받음. 대규모 정치범이 생겨나고 해외로 망명함. 1981년에 African Swine Fever에 걸린 돼지들의 대규모 살처분. 대체종자의 개발에 실패. 농촌에 막대한 타격을 가함. 1983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방문과 변화의 촉구. 1984년에 반정부 시위의 족출과 토지를 요구하는 농민의 학살, 그리고 아이티 주 교회의 문명퇴치운동. 1985년에 대규모 반정부 시위, 특히 군인이 4명의 초등학생 사살과 반정부 시위의 절정. 1986년에 미국이 개입하여 뒤발리에 가를 프랑스로 망명시킴.

민주화의 시도, 아리스티드의 집권과 추방 등 군부의 정치개입.

1990년에 최초의 민주선거로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 67.5% 득표.

1991년 2월. 아리스티드의 정부 출범. 수상 르네 프레발. 9월에 쿠데타 발생하여 아리스티드 대통령에서 축출됨.

1992년. 미국과 쿠데타 군부 측과의 협상. 계속된 협상의 체결과 군부측의 번복, 열강의 무역 제재. 미국의 ‘보트 피플’의 수용 거부.

1994년 10월, 아리스티드의 망명정부가 귀국하여 업무 수행함.

1996년 2월에 아리스티드의 연임불가조항으로 프레발이 대통령에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함.

2000년에 아리스티드의 대통령 당선. 낮은 투표율 문제. 2004년에 대통령 사임.

※ 생각할 거리

1. 아이티 저개발의 요인은?

외부적 요인(구/신 제국주의), 내부적 요인(‘실패국가’의 전형)

2. 왜 아이티는 ‘실패국가’가 되었나?

통합적인 국민의 형성에 실패 ⇐ 물라토와 흑인, 토지개혁의 문제

자립경제의 구축에 실패: 대농장제와 소농경제의 문제

통합적인 정치계급 형성의 실패

3. 아이티혁명의 성취와 부담: 신생 아이티 국가의 조속성.

4. 아이티 저개발의 양상들: 농업과 토지유실, 기술개발의 실패, 시장조건의 불비 등

참상의 아이티 뒤에는 영광의 역사와 피부색의 장벽이 그리고 제국주의도

최갑수 (위클리 경향 기고문, 2010.1.20)

지난 1월 12일, 카리브 해 연안의 소국가 아이티에 규모 7.0의 대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이 수도인 포르토프랭스에 가까워 지진은 사망자만 10만 명을 넘어서는 대참사를 불렀지만, 참으로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이 엄청난 사태를 수습하는데 정작 아이티 정부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아예 국가의 존재감을 전혀 보이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흔히 말하는 ‘실패국가’의 극단적인 전형이 아닐 수 없다. 가관인 것은 국제사회가 힘을 합쳐 구호활동을 벌여야 함에도 미국과 프랑스가 꼴사납게 신경전을 벌여가며 주도권 싸움을 불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런가 하면 캐나다 퀘벡 주나 브라질이 보이는 남다른 정성이나 베네수엘라 차베스 대통령의 끼어들기도 예사롭지 않다. 무슨 사연이 있기에 대지진 참사는 실패국가-제국주의 경쟁-국제적 유대라는 복합적 현실의 뒤틀린 층위들의 속살을 마치 용암의 분출처럼 드러내 보여 주는가? 우리는 아이티 대참사의 비극을 통해 구미세계가 빚어낸 근대세계의 명암을, 아니 차라리 섬광처럼 보이다 사라지기에 평소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추악한 현실의 단면들을 한없는 절망으로 대면하게 된다. 진정 역사의 심연은 그렇게 무섭도록 처연하게 스스로를 드러내는 것인제!

아이티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쯤은 낫설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티 하면 혹 ‘진흙 과자’를 먹는 중남미 최빈국에 관한 보도로 아는 이가 있었을 뿐, ‘정보통신기술’을 뜻하는 IT를 연상하기 십상이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아이티는 참으로 위대한 과거를 가진 영웅국가이며, 근대성의 모든 요소들을 실험하고 변용하고 또 그 희생자가 되어 스스로 형극의 길을 걸은 ‘작은 거인’이다.

아이티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다. 결정적인 전환점이 프랑스혁명과 거의 동시에 발생한 아이티혁명(1791-1803)과 최초의 흑인신생국가 아이티의 탄생(1804년 1월 1일)이다. 이 앞 시기는 콜럼버스의 상륙으로부터 에스파냐와 프랑스의 식민지로 떨어지는 3세기에 걸친 식민시기이고, 뒤의 시기는 구미 열강의 배제와 차별 속에서 꾀꾀 버티다가 결국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한 독립시기이다.

식민시기에 아이티가 겪은 역사적 행로의 대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견을 영유권의 근거로 삼는 유럽식 근대질서의 논리에 따라 아이티는 히스파니올라의 일부로서 에스파냐령이 되었다가 1697년에 그 서쪽의 1/3(우리의 경상도만한 크기임)이 프랑스령이 되어 ‘생도맹그’

라는 이름을 가졌고 이후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었다. 둘째, 이런 과정에서 적어도 3백만 명이 되는 원주민은 사실상 전멸했고 프랑스의 식민지 경영으로 아프리카로부터 수입된 흑인 노예들이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셋째, 18세기 후반에 들어 생도맹그는 유럽 식민지 가운데 가장 번영하여서 혁명 직전 프랑스 대외교역의 거의 2/3를 차지했고, 설탕, 커피, 원면의 유럽 소비량의 절반을 공급했다. 대농장주들은 강력한 이해집단을 형성했고, 삼각무역에 입각한 유럽의 대서양교역은 효율적인 작동을 위해 인종주의라는 새로운 형태의 배제와 차별의 원리를 빚어냈다. 넷째, 대서양 노예제의 본질은 대농장에서 열대작물을 키워 수확하는데 최소의 비용으로 노예노동을 극대화하여 최대의 이윤을 창출하려는 극단적인 노동착취와 이로 말미암은 인신파괴이다. 생도맹그의 경우, 노예의 평균 수명이 20세를 넘지 못했으니 이들의 여건이 얼마나 악랄한 것이었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니 노예들의 지속적인 수입이 불가피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 프랑스혁명 직전의 생도맹그에서 백인이 30,800명, 자유유색인은 24,800명인 반면에, 흑인노예는 전 주민의 90%에 육박하는 50만 명 정도였고 이 가운데 아프리카 태생은 60-70%에 달했다. 다섯째,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이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들은 대부분 전사 출신이고 독자적인 문화와 전투능력을 지녔다. 흔히 이들이 혁명을 일으키는데 계몽사상의 영향을 강조하는데, 최근에는 이들이 고유한 정치문화를 가졌음이 밝혀졌다. 양자가 결합하여 크레올어를 매개로 하는 ‘노예 계몽사상’, ‘흑인 공공영역’이 형성되었고, 이것이 혁명의 바탕이 되었다.

노예들은 무감각한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다. 프랑스혁명과의 동시성을 들어 흔히 아이티혁명을 그 아류로 간주한다. 서방의 교과서류는 아이티혁명에 대해 아예 언급하지 않거나 언급하더라도 그 역사적 중요성을 평가절하한다. 하지만 아이티혁명은 프랑스혁명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것에 못지않은 위대한 혁명이다. 프랑스혁명의 위대성을 운위할 때에 일반적으로 그것이 미국혁명과는 달리 노예해방과 노예제의 폐지를 이룩했음을 지적하는데, 사실 생도맹그에서 노예반란이 없었다면 국민공회는 대농장주들의 이익을 침해하면서까지 1794년 2월 4일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이다. 현지에 파견된 혁명당국의 관무관이 영국과 에스파냐의 침공에 맞서 생도맹그를 지키기 위해 군복무를 대가로 반란노예들에게 자유를 주었던 것이고, 혁명의회는 이를 승인한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노예흑인들은 독자적인 전투능력을 지녔다. 이들은 주변의 영국이나 에스파냐와 같은 열강들을 제압했을 뿐만 아니라 당대 최강인 나폴레옹의 정예군도 물리쳤다.

우리는 아이티혁명의 조속성에 주목해야 한다. 1804년의 시기란 유럽에서조차 근대성이 막 형성 중이었으며, 당시 유럽에서 공화국이란 스위스가 있었을까 사실상 부재했다. 아이티가

독립했을 때, 이른바 근대화의 본보기랄 것도 없었고 그것을 이론화할만한 사회과학은 아직 태동기에 머물고 있었다. 유럽의 우위라고 하는 것도 아직 이렇다할만한 실체성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기에 5만의 흑인군이 유럽 열강의 군대를 차례로 물리칠 수 있었고, 아프리카의 게릴라전술과 유럽의 기병과 보병 연합전술을 함께 구사했던 혁명의 영웅 투생 루베르튀르(Toussaint Louverture)는 나폴레옹과 비교하여 조금도 뒤지지 않는 당대 최고의 군사전략가였다.

생도맹그의 노예흑인들이 인신해방과 궁극적으로 정치적 독립을 이룩해 냈을 때, 이들이 택한 국호는 소멸한 원주민들이 사용했던 원지명인 ‘아이티’(‘산악이 많은 지방’이란 의미)였다. 아프리카 출신의 노예들이 아이티를 새로운 정체성의 근거로 택했음은 이들이 당시 대서양 세계의 인종계서제의 같은 하층에 처해 있던 원주민들(Amerindians)과 공감대를 지녔음을 말해준다. 1810-20년대 라틴 아메리카 혁명의 주역인 볼리바르(Simon Bolivar)가 두 번씩이나 아이티로 피신하고 당시 아이티의 대통령인 페티옹(Alexandre Pétion)이 어려운 여건에서도 그를 지원했음은 혁명의 수출이라는 이데올로기 차원과 함께 중남미 특유의 국제적 유대감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신생 아이티에게 가장 중요한 국내문제는 내전과 혁명의 와중에서 폐허가 된 경제를 어떻게 재건하느냐 하는 것이었다. 크게 두 노선이 경합했다. 하나는 식민지 시기의 대농장체제를 재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토지를 광범위하게 분배하여 소농체제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다. 사실 이 논쟁은 계급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이미 혁명의 과정에서 주도권 갈등으로 표면화했다. 크게 보아 아프리카 태생의 노예병사 일반이 소농체제를 선호했다면, 현지 태생의 몰라토나 해방노예들은 집단강제노동을 전제하는 대농체제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원했다. 양 세력의 갈등과 대립이 독립 이후의 잦은 정변의 근본 요인이며, 소농체제론은 토지개혁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혁명적 전통의 운반체 역할을 했다. 우리는 19세기 말까지도 비유럽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유럽의 농민들조차 대부분이 예속상태에 있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이티의 해방노예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한 신생 경제의 건설을 고민하고 또 일정 수준에서 이룩했으며, 이는 당시의 세계사에서 결코 작지 않은 성취였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이런 아이티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 아이티는 노예들이 최악의 조건에서 엄청난 희생(최소한 5만 명)을 치러가면서 당시 대서양 세계의 최강대국들을 물리쳐 세운 최초의 국가이다. 그것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만이 아니라 모든 기존의 국가들에게 위협이었다. 노예해방의 메시지는 노예제를 유지하는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끌어올려 결국 그것의 폐지를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예속상태에 머물러 있던 모든 나라의 하층민을 자극할 것이었기 때문이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그 노예가 흑인이라는 점이다. 열등한 존재인 흑인(노예)이 자유를 요구하여 그것을 쟁취하다니! 이는 백인 유럽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사실이다. 이는 자본주의 세계질서를 떠받치는 버팀목의 하나인 인종주의를 부정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실이다. 사정이 이렇기에 서방의 학계는 노예혁명이 터질 때부터 두 가지 배제와 차별의 전술을 구사해왔다. 하나는 그런 사실 자체를 묻어버리는 '침묵의 카르텔'이다. 오늘날까지도 구미의 교과서를 비롯하여 모든 개설서들은 아이티 혁명에 대해 아예 언급조차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의 현존을 부정할 수 없는 전문가들은 '평범화 전술'을 구사한다. 이들은 이 우렁찬 혁명이 있었음을 외면할 수 없기에 그 의미를 평가절하하여 날카로움을 지워버리려고 한다. 이는 예컨대 프랑스의 좌파 역사학에도 해당한다. 그러기에 이들은 프랑스혁명이나 '백인 계몽사상'의 영향이나 혁명과정에서 백인들이 행한 역할을, 그리고 아이티가 독립 이후에 오히려 더 빈곤해졌음을 강조한다. 그러면 그렇지! 흑인국가가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말이다.

우리는 실제로 아이티가 '실패국가'의 본보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 나라는 중남미 최빈국이다. 오늘날 문맹자의 비율이 전 국민의 절반을 넘고 80%가 기아선상에서 허덕인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현실의 이면과 숨겨진 역사 속에서 아이티의 비극이 철저히 의도되고 기획된 결과임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최초의 위대한 성공한 노예혁명과 흑인국가는 그 휘광만큼이나 철저히 망가져야 했다. 참으로 그것은 자본주의의 생존과 구미 중심의 세계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실패국가의 전형이 되어야 했고, 또 실제 그렇게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국제질서의 작동방식에 주목해야 한다. 아이티는 1804년에 독립하면서 국제적으로 고립됐다. 대서양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백인 구미 국가들은 누구도 이 신생 흑인국가를 외교적으로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 정도가 아니라 혁명의 수출을 두려워 하여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실제로 아이티는 1822년에 같은 섬에 있는 에스파냐의 식민지인 산토도밍고(오늘날의 도미니카 공화국)를 침입하여 노예제를 종식시켰다. 19세기 전반기에는 식민 본국이었던 프랑스가 아이티에 대한 각종 압력을 주도했다. 프랑스는 1838년이 되어서야 아이티를 무조건적으로 승인하게 되는데, 아이티는 프랑스 대농장 소유주들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1억 5천만 프랑을 지불하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바꿔 말하면 가난한 신생국가는 출발부터 막대한 금액의 부채를 짊어져야 했고, 이는 두고두고 아이티에 부담이 되었다. 다른 나라들의 승인이 뒤따랐음은 물론이다. 노예제국가인 미국은 이런 국제적 행렬에 끼일 수 없었다. 미국이 아이티를 승인하게 되는 것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2년에 와서였다.

19세기 후반이 되면 아이티는 프랑스의 놀이터에서 열강, 특히 미국과 독일의 각축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19세기 말에 쿠바로부터 관타나모를 장악하고, 윈드워드 해협 건너편에 있는 아이티에 개항장을 장악하기 위해 해병대의 상륙을 시도하기도 했다. 프랑스, 미국, 독일 자본들이 아이티 지배층을 장악해 들어갔고 1843-1911년 사이에 대통령이 된 16명 가운데 11명이 민중에 의해 권좌에서 쫓겨났다. 아이티는 여전히 건강한 혁명의 활력을 지녔던 것이다.

20세기가 되면서 아이티는 미국의 놀이터로 전락하기 시작했다. 1911-1915년이 결정적인 시기였다. 이 시기에 미국 자본의 승리가 확정되는데, 다섯 명의 대통령 가운데 한 사람은 대통령궁에서 폭사하고 다른 한 명은 독살되고 나머지 세 명은 혁명으로 쫓겨났다. 마지막 대통령인 삼(V. G. Sam)은 프랑스 공사관으로 피신했다가 무참하게 살해당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고자 미국은 아예 1915년 7월에 아이티를 군사적으로 점령했다. 미국의 자본가들은 즉각 중앙은행인 '아이티 은행'을 장악했고, 아이티는 미국의 보호국, 사실상의 식민지로 전락했다. 미국은 이런 범죄행위를 저지르면서 뻔뻔스럽게도 '먼로주의'와 인도주의를 앞세웠다.

이후의 20세기는 미국의 직, 간접의 점령과 개입, 이로 말미암은 만성적인 정정의 불안, 뒤발리에(Duvalier) 부자의 30년에 걸친 무단독재(1957-86), 하지만 그런 속에서도 끊임없는 민중의 저항과 두 차례에 걸친 민중 신부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의 대통령 당선과 미국이 지원한 쿠데타로 인한 망명으로 점철된다. 현재 대통령인 프레발(René Prével)은 2세기가 넘는 아이티의 역사에서 민주적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제대로 채운 두 번째 대통령이고 민중의 상당한 지지를 받았지만, 현재 많은 아이티인들은 아리스티드의 귀환을 바라고 있다. 과연 아이티는 대지진의 참사로부터 되살아 날 것인가? 아이티가 이보다도 더 어려운 연건에서도 새 나라를 만들고 끊임없이 민중의 활력을 되살려왔음을 아는 우리로서는 아이티의 재생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인간성에 대한 신뢰, 이것이 아이티 역사의 교훈이기 때문이다.

1월 12일 카리브해의 아이티를 뒤흔든 대지진의 여진은 진도 7.0의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이는 비단 글자 그대로의 여진의 가능성과 공포, 대지진의 잔해 속에 살아남은 사람들의 앞으로의 생존과 복구, 국가 재건의 과제의 무게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겪어야 했고 또 겪고 있는 아이티 민중들이 그들의 의지나 실제 사실과는 무관하게 고스란히 감당할 수 밖에 없었던 왜곡과 편견의 지진, 그로 인해 지난 200여년 간 그들이 힘겹게 지켜왔던 역사적 성취와 존엄, 그리고 주권의 붕괴를 뜻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맨 밑바닥에는 우리의 뿌리깊은 인종적, 계급적 편견이 자리잡고 있다. 오늘의 토론을 위해 지금부터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들을 개조식으로 열거해보고자 한다.

1. 진실은 강도 7.0의 지진이 일어났다는 것 뿐(?)

(1) 지진 직후부터 홍수처럼 쏟아진 국내외 주요 언론들의 보도 양상:

①지진이 일어났다→②많은 사람이 사망했고 생존자들은 극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③아이티 정부는 재난관리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다→④대규모 폭동과 약탈이 만연하고 있다→⑤그렇기 때문에 구호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치안 유지가 최우선 과제이다→⑥외부의 물리력(군대)을 긴급히 투입해 치안과 질서를 회복해야만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예1) “지금 이 곳에 남아 있는 유일한 산업은 약탈 뿐이다. 그 어떤 것도 무기가 될 수 있다. 무장한 라이벌 갱들이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군대가 (이 곳을) 완전히 장악하는 것이다.” -BBC 특파원 맷 프레이

예2) “최근 몇 년 간 이뤄놓았던 치안이 완전히 무너졌다... 약 3천 명에 이르는 갱들이 현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최대한 활용하려 들 것이다.” -BBC 특파원 프랭크 가드너

예3) “지진 피해가 큰데다 원래 최극빈민층 지역인 카르푸르에서는 무너진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꺼내 가져가고, 이곳을 지나가는 경찰도 이런 약탈을 제지할 생각도 않는다. 술을 마신 사람들은 눈이 붉게 충혈돼 있고, 작은 물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주먹다짐을 하고 있다. 포르토프랭스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순 없지만, 카르푸르 지역은 완전 무정부 상태다.” - 한겨레 워싱턴 특파원 권태호

(2) 그와 반대되는 주장들

“현재 아이티에서 발생하는 폭력 건수는 오히려 지진 이전보다 줄어들었다.” - 미군 남부 사령부 부사령관 P.K. 킨 중장

““그들이 등에 지고 있는 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흘 동안 굶은 상태에서 피약별 아래 시체와 뒤섞여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은 아주 훌륭히 대처하고 있습니다... 아이티인들은 놀라운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과 가진 것 모두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 - 빌 클린턴 미 전 대통령

“(아이티 주민들이 설치한)소규모 무료 급식소들이 곳곳에 생겨났다. 음식을 구하는데 필요한 돈은 아이티 주민들이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들을 각출해서 충당됐다”

“(4천 명이 임시로 거주하는 프리마뚜르 가든의 임시 수용소에서 주민들은) 수용소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고...주민들에게 기초적인 응급처치를 가르쳤으며...생존자 확인에 들어가는 한편...청소와 치안 순찰을 담당하기 위해 주민들을 조직했다.” -크리스찬 사이언스 모니터

“(구호 트럭이 사전 연락없이 도착하자 굶주린 아이티 주민들이 트럭 주위에 몰려든 상황을 묘사한 뒤) 군중들 가운데 다섯 명의 청년들이 앞으로 나섰다... 5분 만에 (식량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줄이 질서정연하게 세 개가 만들어졌다.” -뉴욕 타임즈

2. 진실의 재구성

(1) 소규모 약탈과 남은 물자나 구호품을 차지하기 위한 폭력이 있긴 했지만, 구호보다 치안과 질서 확보가 최우선이 될 정도의 사실상의 ‘폭동’ 상황은 아니었다. 오히려 주민들은 외부의 식량과 물, 의료진의 도착을 기다리며 스스로 생존자 구조와 임시 수용소 설치 등에 주력.

(2) 미군이 공항과 항구, 대통령궁을 장악한 뒤 군인과 군용품의 수송, 힐러리 클린턴 장관의 방문 일정 때문에 오히려 긴급구호물자의 수송을 더디게 만들. 그로 인해 구호품이 주민들에게 전달되지 못하면서 주민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함.

“군대와 장비의 착륙, 그리고 미국민과 외국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키기 위해 목요일과 금요일 미군은 세계식량기구의 수송기들의 기수를 돌리게 해” -뉴욕타임즈 1월 17일자

“1월 18일 국경없는 의사회는 12톤의 의료물자를 실은 수송기 중 한 대가 지난 일요일 이래로 세 차례나 착륙이 거부된 데 대해 항의” -더 타임즈 1월 20일자

“지진이 발생한 지 8일이 지났지만 진앙지인 까르푸를 포함해 포르투프랑스의 가난한 남서쪽 주민들은 식량이나 구호 혹은 의료진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해” -텔레수르 1월 20일자

(3) 또한 외국 구조팀의 생존자 탐색과 구조 작업들이 주로 특정 지역에만 집중됨

“탐색과 구조 작전은 유엔 건물과 외국 구호팀들이 있는 건물, 외국인들이 묵는 대형 호텔 같은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 -워싱턴 포스트 1월 18일자

(4) 미군이 설정한 이른바 “레드 존(Red Zone)”을 중심으로 구호가 이뤄지면서 나머지 대다수 주민들이 분노가 극에 달하고, 급기야는 “스스로 (물자의) 배급(self-distribution)”에 나섬.

(5) 이를 막는 유엔평화유지군과 주민들이 충돌하는 장면이 외신을 통해 “대규모 약탈과 소요사태”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됨.

참고-민중의 소리 2010.1.27 기고문

아이티 사태, 무지와 왜곡과 편견의 여진은 지진만큼이나 강하다

까밀로 / 경계를넘어 활동가

흔히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라 일컬어지는 아이티에서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보름여가 지났다. 아이티 민중들이 겪었던, 아니 지금도 겪고 있는 고통에 비하면 아무 것도 아니겠지만, 세계인들 대다수가 발을 동동 구르며 가슴 아파했던 보름이었다. 그 중 일부는 직접 현장으로 날아가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 구조와 구호, 의료 활동에 힘을 보태기도 했고, 사정이 허락지 못한 사람들은 성금과 물품, 또는 마음으로나마 아이티 민중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려 했던 시간이기도 했다.

그러나, 지진 직후부터 쏟아져 나온 외신 보도와 현지에 급파된特派원들의 ‘생생한’ 현장 소식과 이미지가 주는 충격에 그만 넋을 놓은 나머지, 우리는 어느새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를 잊고 말았다. 그것은 바로 아이티 민중들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이다. 비록 집이 무너져 갈 곳도 없는 상태에서 먼지와 눈물이 뒤범벅되어 물과 음식을 찾아 헤매는 신세라 할지라도, 그래서 얼굴도 모르는 그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에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즉, 그들에게도 살고자 하는 본능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자존심, 인격이란 게 있으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과 어려울 때 서로 도우려는 공동체 의식이란 게 존재한다. 단지 인간으로서 건디기 힘든 극단적 상황에 놓여있을 뿐, 아이티 민중들은 먹이를 던져주면 서로 차지하기 위해 달려드는 하이에나 떼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아이티 대지진 참사를 전하는 언론에 묘사된 아이티 민중들의 모습은 둘 중 하나다. 폐허가 된 집 앞에서 가족을 잃고 울부짖는 ‘피해자’이거나, 혼란을 틈타 식료품과 생필품, 재물을 약탈하려 혈안이 된 ‘폭도’거나.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갈라서 상황을 설명해주면 기사를 쓰는 기자도, 읽는 독자도 참 편리하기 그지없다. 그래서인지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언론이든 진보언론을 자임하는 한겨레, 경향이든 간에 아이티 민중들에게 그 두 가지 딱지 중 하나를 골라 붙이는 데는 별반 망설임이 느껴지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그런 식의 보도태도는 하나의 순환논리를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이끌어낸다. 즉, 가난한 나라에 대규모 지진이 일어나 나라가 완전히 초토화됐다, 그런데도 정부는 무능하고 사람들의 의식 수준은 한없이 낮아서 구호품을 서로 차지하기 위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하다, 직접 취재해보니 너무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더라, 유엔이 기존의 평화유지군으로 어떻게든 혼란을 수습해보려는데 역부족이다, 결국 사람들을 살리려면 각국 정부가 군대를 보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하는 수밖에 없다, 왜? 정부는 무능하고 국민들 의식 수준은 한없이 낮으니까, 아 답답하고 가슴 아파 등등등. 그러나 과연 이는 진실일까? 그렇다면 아이티를 돕겠다고 수고롭게도 군대까지 급파한 미국, 캐나다, 브라질 정부나 유엔, 그리고 기꺼이 파병 대열에 합류를 선언한 한국 정부를 지지하고 박수쳐주면 되는 건가? 그럼 지금 아이티 국민들도 두 손 높이 뻗어 ‘주여, 감사합니다’하고 감격해하고 있을까? 나의 의문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한다. 물론 이것은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의문이기도 하다.

그럼 하나씩 짚어보자. 아이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아메리카 대륙에서는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독립을 이룬 나라다. 당시 약 3만여 명의 유럽계 백인들과 그 비슷한 수의 흑백혼혈인 몰라토들에 의해 혹독하게 착취당하던 흑인노예들이 오늘날 아이티의 국부로 존경받는 투생 루베르튀르와 그 뒤를 이은 장-자크 데살린(Jean-Jacques Dessalines)의 지도 아래 대규모 항쟁을 일으켜 프랑스의 나폴레옹 군대를 물리치고 독립을 쟁취한 것이 1804년이였다. 그리고 이는 시몬 볼리바르를 비롯한 아메리카 대륙의 다른 혁명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그 뒤 다른 국가들이 잇달아 독립을 이루는데 있어 도화선 역할을 하였다. 여기서 굳이 이백년도 더 지난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그러한 그들의 과거가 오늘날까지도 아이티 민중들에게는 굳건한 자부심을 넘어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의지의 원천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독립 이후 경험한 쿠데타만도 무려 34차례였고, 그 영향으로 한 때 서반구 식민지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곳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로 전락한 상황이지만 아이티 민중들은 진보와 퇴보를 거듭하면서도 지금까지 그런 온갖 어려움들을 하나씩 극복해온 경험을 가진 사람들인 것이다.

쿠데타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아이티인들이 가장 최근에 쿠데타를 경험한 것은 지난 2004년 2월이었다. 91.8%라는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됐던 장 베르뜨랑 아리스티드(Jean-Bertrand Aristide) 대통령이 새벽에 무장군인들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 태워진 채 중앙아프리카로 쫓겨난 것이다. 그러자, 그동안 혹독한 경제제재로 아이티 국민들을 압박하는 한편 공공연하게 아리스티드 대통령의 사임을 요구해왔던 미국 정부는 쿠데타 바로 다음 날, 마치 기다렸다는 듯 미 해병대 선발대 150명을 아이티에 배치해 사실상 아이티를 장악했으며, 뒤이어 프랑스, 캐나다, 브라질 군 등으로 구성된 이른바 유엔 평화유지군인 유엔아이티 안정화지원단(MINUSTAH)이 구성돼 오늘날까지 아이티에 주둔해오고 있다.

이는 이번 대지진 참사에 뒤이은 상황과도 바로 직결되는 문제다. 즉, 지금 아이티의 흥분한 ‘폭도’들을 진압해 치안과 질서를 유지해야만 어려움에 처한 아이티 국민들을 위한 구호작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다, 그래서 더 많은 유엔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지난 몇 년 간의 아이티인들이 겪어오고 목격한 현실에 비춰볼 때 전혀 올바른 해법이 아닐뿐더러 그들을 더욱 분노케 하고 강한 반발과 저항만 불러올 뿐이라는 것이다.

왜냐하면, 2004년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이 뽑은 대통령의 복귀를 통한 민주주의의 회복을 거부해온 것이 다름 아닌 유엔이었고, 과거 군부정권 시절 인권침해로 악명 높았던 인물들을 아이티국립경찰로 등용하고 훈련시킨 것 역시도 유엔 평화유지군이었으며, 아리스티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아이티 경찰이 시민들을 수시로 체포, 고문, 성폭행, 살해함에도 불구하고 유엔 평화유지군은 팔짱만 끼은 모습을 아이티 국민들은 지켜봐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2005년과 2006년 유엔평화유지군이 직접 시떼 솔레유 빈민가에서 수십 명을 학살한 것을 비롯해 인권침해의 가해자로 둔갑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흔히 이번 지진 참사에서 보여준 아이티 정부의 무능함을 손가락질하지만, 알고 보면 그건 멀쩡한 대통령을 쫓아낸 뒤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고는 무능한 르네 프레발 정권을 허수아비로 앉혀놓은 유엔과 미국의 자업자득이다. 마찬가지로, 아이티 민중들이 시민 의식과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이 부족하다고 쉽게 단정짓는 사람들이 많지만, 아리스티드 대통령 당시 잘 조직되어 있던 <판미 라발라스(Fanmi Lavalas)>를 비롯한 풀뿌리 자치 조직들을 단지 아리스티드를 지지한다는 이유로 탄압하고 와해를 시도한 이들은 또 누구였던 말인가? 그런 과정을 고스란히 목격해온 아이티 민중들이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유엔을 비롯한 외부의 군사적 개입을 반길 까닭이 있을까?

물론 이즈음에서 많은 이들은 위와 똑같은 논리를 반복하며 반문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지금의 폭력과 약탈을 중단시켜야 하지 않겠냐고, 어쨌든 아이티 정부와 경찰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현재 상황에서는 유엔을 비롯한 외부의 개입이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그
래야 사람들을 도울 수 있지 않느냐고 말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좀 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보는 것이 필요하겠다. 먼저,
아이티에서 강도 7.0의 대지진이 일어났다. 수십만 명이 무너진 건물더미에 깔리고 살아남은
수백만 명은 집도, 물도, 식량도, 제대로 된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공황상태에 빠져 우왕좌왕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다. 자, 그러면 지진이 일어나자마자 바
로 흥분한 아이티 민중들이 순식간에 폭도로 돌변해서 닥치는 대로 약탈을 시작했을까? 이
에 관해서는 우선 미국의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해보겠다. “그들이 등에 지고 있
는 짐을 제외하고는 모든 걸 잃어버렸다는 사실, 그리고 나흘 동안 굶은 상태에서 피약별 아
래 시체와 뒤섞여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는 걸 고려하면, 이들은 아주 훌륭히 대처하고 있
습니다... 아이티인들은 놀라운 국민들입니다. 그렇게 막대한 인명피해를 입고 사랑하는 사람
과 가진 것 모두를 잃고도 어떻게 그렇게 침착할 수 있을까요?”(1월 18일자, 영국 BBC 라디
오)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아이티를 취재해온 미국 <데모크라시 나우> 라디오가 인터뷰한
현지 병원의 한 외국인 의사가 전한 말이다. “(군인들이) 통제해서 환자들이 병원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나) 밤늦게 돌아다니는 경우라면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엔 치
안이 불안하지는 않아요...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고, 여기서 유일한 위기는 사람들이 교통
을 겪고 있다는 사실 말고는 없어요”(1월 20일자, 데모크라시 나우 라디오) 이 밖에도 아이
티란 나라와 그 사람들을 잘 알고, 참사 초기부터 상황을 지켜봐온 사람들이 전하는 내용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렇다면, 구호품 식량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주먹과 칼을 휘두르며 싸우고, 상점을 터는 ‘폭
도’들의 모습을 영상과 사진, 기사로 전달한 국내외 기자들은 모두 헛것을 보거나 사실을 조
작한 것일까?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다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고 왜 그들이 그렇게 분
노하고 행동하는 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짧은 시간 내에 취재를 하고(게다가 언어
도 안 통한다!) 경쟁적으로 기사를 생산해내다보니, 부분적인 사실이 마치 전체적인 진실인
양 믿어버렸을 가능성이 크다. 또한 그 나라는 가난한 흑인들이 다수를 차지하는 나라라니,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던 계급과 인종에 대한 편견까지 작동했을 테고 말이다.

아무튼, 필자가 다시 종합해본 진실은 이렇다. 지진 뒤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도 아이티인들은
“아이티 전역에서 스스로 주민위원회를 조직해 (현장을)수습하고 잔해에서 시신들을 꺼내며,
난민 캠프를 설치한 뒤 치안을 확보하는 모습”(〈아이티 리베르테(Haiti Liberté)의 킴 아이브
(Kim Ives))을 보여주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외부에서 전해지는 구호품과 의료진은 구경도

하지 못한 채 그렇게 일주일을 넘게 버텼다. 그러나, 애타게 기다리던 도움의 손길은 소식이 없고 그 대신 미군이 공항을 장악해 그 곳에 작전본부를 차리고 생뿔뿔하게 대통령궁을 ‘장악’했다는 소식만 들려온다. 뿐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는 한시가 급한 마당에 ‘구호품과 의약품 가득 실은 세계식량프로그램(WFP)과 국경없는의사회(MSF)의 수송기들은 미군들을 실어나르는 수송기의 이착륙 때문에 착륙이 거부돼 이웃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기수를 돌려야했다(1월 17일자 미국 뉴욕타임즈, 1월 20일자 영국 텔레그래프)’는 이야기도 분명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을 것이다. 그나마 운이 좋은 사람들은 간간히 헬리콥터에서 떨어뜨려주는 빵과 물을 얻을 수 있었지만, 그마저도 고마움과 안도감보다는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인한 분노만 키울 뿐이다. “우리는 그들이 던져주는 뼈다귀를 받아먹는 개가 아니”(레오간의 한 아이티 남성, 1월 22일자 데모크라시 나우)기 때문이다. 그러는 사이 점점 사람들의 인내심과 체력은 바닥을 드러내고, 자신과 굶주린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 물과 음식을 찾아서 거리의 상점들을 뒤지기 시작한다. 이미 그 곳에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구호보다는 공식적으로 ‘치안과 질서 유지’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미군과 유엔 평화유지군들이 총으로 무장한 채 상점과 주요 건물들을 지키고 있다. ‘아, 저들은 우리의 생명보다는 가진 자들의 재산을 지키러 왔구나’하는 배신감이 일면서 그 때부터는 각자 알아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한 생존경쟁이 시작된다.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집어 들고 달리는 사람들, 그걸 빼앗는 사람들, 그리고 곤봉을 휘두르고 공포탄을 쏘며 그들을 위협하거나 체포하는 군인들, 그걸 취재하는 외국 기자들, 그리고 그들이 전해온 기사를 읽는 우리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진실이라 믿고 있는 아이티의 이른바 ‘약탈’과 폭력, 혼란의 본질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제 답은 간단해진다. 아이티 민중들에게 하루빨리 무장한 군대가 아니라 물과 식량과 잠자리와 의료진을 제공하는 것이다. 그것만 충족된다면 아이티 민중들이 굳이 상점을 털고 아귀다툼을 벌여야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미군과 유엔군은 그들 스스로 치안과 질서가 확보됐다고 판단한 ‘레드 존(Red Zone)’ 내에서만 구호단체들과 의료진들의 활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한다. 마치 이라크 바그다드 시내에 ‘그린 존(Green Zone)’을 설정해놓은 것과 판박이다. 참 위험하다. 이는 대다수 아이티 민중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배신감과 절망감만 키울 뿐이기 때문이다. 또한, 자꾸만 군대를 더 보내서 레드 존을 넓혀가는 방식으로는 어느 세월에 한 시가 절박한 아이티 민중들을 도울 수 있겠는가. 그보다는, 아이티에서 태어나고 자라오고 살아오며 스스로를 조직하고 깨우쳐온 경험을 가진 그 곳의 풀뿌리 활동가들과 주민들 스스로를 활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식이다. 아이티 국민들 대다수가 반감을 갖고 있는 외국 군대가 해답이 아니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엔은 왜 그들을 활용하지 않는가? 그들이 쫓겨난 아리스티드 대통령을 지지하는 빈민들이라서? 만약 그래서라면 미국과 유엔은 정치적 계산에 따라 아이티

민중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이용했다는 비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이제 글을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다. 지금 막 원고를 송고하려고 인터넷 창을 열자, 한국 정부도 다음 달 2일 국무회의를 열어 아이티에 220여명의 평화유지활동(PKO) 병력을 파견하는 내용의 파병동의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는 뉴스가 뜬다. 이참에 약삭빠르게 묻어가려는 건지, 아니면 무식한 건지 모를 일이다. 가슴이 답답해온다.

아이티 구호 활동, '인권 없는 인도주의'의 한계¹⁾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몇 년 전 어느 뒤풀이 자리였다. 사학과 대학원생이 자리를 같이했다. 마침 논문을 쓰던 때라 석사 논문 주제에 대한 질문이 오갔다. "아이티 혁명에 대해 쓰려고요." 순간 모두들 멈췄다. "사학과에서 왜 아이티 혁명에 대해 써요?"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모두들 동의의 눈빛을 보냈다. 모두의 머릿속에 떠오른 건 아이티(IT) 혁명, 즉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혁명이었던 것이다. 순간 눈치 빠른 한 명이 "아, 아이티!, 프랑스 혁명 때 노예 혁명을 일으켜서 독립한 나라, 그거 말하는 거죠?" 그제서야 다른 사람들이 "아아, 그래서 사학과 논문 주제였구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아이티(Haiti)는 모르는 존재였고, 아이티(IT)는 핸드폰으로 모두의 손안에 있었다.

그런 아이티가 새해 초, 모두의 눈 안에 들어왔다. 그러나 처참한 비극과 고통을 안고 날아들었다. 누가 얼마를 냈다더라 식의 재난보도의 전형적인 기사유형에 짜증이 나면서 난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했다. 믿을만한 구호단체에 기부를 하는 일 말고 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읽던 것들을 제쳐놓고 아이티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기로 했다. "당신들에 대해 알고 싶어요", "당신들이 이렇게 오랜 세월 어떤 식으로 고통 받는 줄 지금껏 몰랐어요"라는 말부터 해야 할 것 같았다.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 앞으로는 잊지 않고 주 관심을 가질게요"라고 약속해야 할 것 같았다.

출간 직후 사놓고 책장에 모셔두었던, 아이티 혁명에 대한 기록 <블랙자코뱅, 투생 루베르튀르와 아이티 혁명> (시엘 아르 제임스 지음, 우태정 옮김)을 빼어들었다. '자유, 평등, 우애'라

1) 이 글은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는 인권의 원칙이 서구 백인의 성공 뒤에 나머지 세계와 인종에게 낙숫물처럼 떨어진 것이 아니라 당대에 흑인 노예 혁명 속에 이미 담겨 있었다는 기록이다.

19세기 최초의 노예 해방 혁명으로 독립한 나라가 아이티이다. 2004년은 아이티 독립 2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식민주의자들은 가장 풍요하고 이득이 되는 식민지 아이티에 대한 탐욕을 놓지 않았고, 독립 후에도 주인행세를 하는 자의 얼굴만 바뀌었을 뿐 그 야욕은 계속됐다. 그 결과는 정치적 불안과 지독한 가난이었다. 허리케인과 지진 등 연이은 재난은 이런 인재와 겹쳐져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

한 후배는 아이티의 전직 대통령 아리스티드(네 번이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으나 쿠데타와 미국의 개입으로 번번이 물러나야 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아주 엇갈린다.)가 지은 책을 권했다. 제목부터가 가슴에 와 닿았다. <가난한 휴머니즘, 존엄한 가난에 부치는 아홉 통의 편지>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 지음, 이두부 옮김)였다.

"글조차 쓸 수 없는 아이티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이 기록들을 쓰게"되었다는 편지글에는 아이티 사람들의 가난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오랜 식민지 착취와 노예제의 상처 위에서 국제 금융기구와 신자유주의로 인해 자생력이 어떻게 파괴되었는지, 정치혼란을 야기하여 이익을 챙긴 세력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조용하지만 굵은 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그런 고통 속에서도 제 3의 길을 찾을 수 있다는 아이티 사람들의 연대의 힘과 희망을 강조한다. 특히나 필자가 지켜본 아이티 아이들, 가사노예로 시달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아이들이 교육과 친교 활동을 통해 얼마나 놀라운 인간역량을 보여주는지를 통해 그 희망을 얘기한다.

"우리들이 분노와 좌절, 자포자기를 폭력으로 분출하는 것보다 평화를 위해 결집하도록 해주십시오. 체념하면서 죽는 방법과 폭력적 폭발을 통해 죽는 방법, 이 두 가지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집단적 결집이 바로 제 3의 길입니다. 이것은 인간 에너지의 어쩔 수 없는 집중입니다. 우리에게 돈은 충분하지 않지만, 사람만은 충분합니다."("나는 주스가 더 좋아요' 중에서)

"우리는 평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슬로건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뱃속에 평화가 없다면, 머릿속에도 평화는 없다." 아이티 같은 나라의 경우, 말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음식만 주고 그들을 말하지 못하게 놓아둔다면, 그것은 위선적인 일입니다. 같은 이유로 그들에게 단지 말만 들려준다면, 그것은 선동에 지나지 않습니다. 경제적 참여가

없는 정치적 참여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뱃속 평화와 머릿속 평화' 중에서)

"아이티 정부가 국제기구의 지시를 계속 따른다면 우리는 전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프로그램에 따라 그저 여기에서 저기로 맴돌 뿐, 상황은 더 악화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반면 민중들에게 전략을 구하는 시민사회 사이에서 아이티의 조직들을 본다는 것은 한밤중에 촛불을 만나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절망의 암흑에서 만난 희망! 우린 대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지는 못하겠지만, 적어도 우리를 굶주림에서 꺼내어 '존엄한 가난'으로 이끌 것이라 봅니다."('우리는 존엄한 가난을 원한다' 중에서)

"당신께 우리가 바라는 점이 있다면 바로 지금도 우리는 아이티의 새로운 도전을 위해 땀 흘려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념 덕에 도전이 이루어지는 그날이 올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 신념, 이 확신이야말로 우리가 전 세계에 드릴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수출품이 아닐까 합니다. 이 신념을 나눠 가지도록 당신께도 초대장을 보냅니다. 저와 당신은 함께, 같은 손의 손가락처럼 이 새로운 세기에 더 인간다운 세계를 만들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당신에게 보내는 아이티의 특별한 초대장' 중에서)

책장을 덮고 나니 "여기 사람이 있어요"라는 외침이 생생히 들려온다. "우리도 여기 있어요"라는 화답이 절실한 때이다.

오늘 읽어볼 인권문헌은 아이티 참사 직후 '아이티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구소'(Institute for Justice and Democracy in Haiti) 등 6개 인권단체가 내놓은 긴급성명이다.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초한 접근이 필수임을 강조하고 있다. 당장 급한 지원금과 구호대를 보내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심과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이뤄져야 할지도 당장 고민해야 할 것 같다. 쓰나미처럼 몰려왔다가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관심으로 아이티의 고통이 오래 계속될 터이다.

앞서 인용한 아리스티드의 편지글에서는 "결국 이 작은 행성에 사는 우리 모두는 똑같은 물에서 함께 헤엄치고 있다"고 했다.

아이티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요청한다

아이티의 정의를 위해 일하는 인권단체들로서 우리는 기부국 정부, 국제조직, 민간단체들에게 재난에 처한 아이티의 필요에 부응함에 있어 국제인권의 원칙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

지진에 대한 빠른 대응은 절실히 필요하다. 하지만 그런 대응이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은 아이티 사람들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을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 기부자들(국제조직, 민간단체)이 모든 아이티인의 권리증진을 위해서나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보호할 아이티 정부의 역량을 만드는 방식으로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 일이 너무 흔했다. 역사적으로 아이티에서는 분배의 모든 단계에서 당사자들의 의사결정 참여, 기부자들과 집행 기구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없었다. 아이티의 회복과정은 여러 해가 걸릴 것이고 그러하기에 이 과정을 이끄는 분명한 인권 원칙이 더욱 중요하다. 과거의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 속에서 아이티가 경험한 것은 조정되지 않고 예측가능성 없는 원조와 깨진 약속이었고, 이것들은 더 큰 고통을 야기했다.

기부자들은 과거의 교훈에서 배워야 하고, 이번 일을 아이티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기 위해 권리에 기반한 방식으로 원조를 집행하기 위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부자들(국제기구, 민간단체 등)에게 촉구한다.

- 인도주의적 원조의 계획, 집행, 평가의 모든 단계에서 인권을 존중하고 '국내난민에 관한 유엔지도원칙'(www.idpguidingprinciples.org)을 따라라.
- 투명성, 책임성, 역량 발전, 참여, 비차별의 목적을 보장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법을 채택하라.
- 장기 계획을 세우고, 모든 아이티 인민에게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부를 가진 더 강한 아이티 건설에 초점을 두어 모든 지원을 아이티 정부와 조정할 것을 보장하라.

비상사태의 대처에서 인권을 존중하라

우리는 기부국 정부(국제기구, 민간단체들)에 촉구하는 바는 원조 노력을 조정할 것과 인권의 원칙에 따라 모든 원조를 계획하고 집행하고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지속적인 욕구 평가는 또한 위기가 인권에 미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대응을 조정하는데 있어서, 국제사회는 원조가 지진 이전에 있었던 소외나 인권침해를 악화시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여성에 대한 폭력이 증가했다는 보고를 보건대, 임시 위생시설은 여성에게 프라이버시와 안전을 제공해야 한다. 배분 프로그램은 음식과 물의 부족이 여성과 아동에게 불균등한 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또한 고려해야만 한다. 아이티의 빈민 대다수에게는 자기 땅에 대한 공식적인 권리가 대개 없기 때문에 단기간의 전략에서도 땅에 대한 권리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이번 비상사태 동안에, 모든 국제 행위자들은 집을 떠나 피할 수밖에 없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국내 난민에 관한 유엔 지도 원칙'을 사용해야 한다. 이 지도원칙은 모든 국면에서 국내 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모든 관련 행위자들을 이끄는 국제원칙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국제 인도주의법과 인권법, 그리고 유사한 난민법에 기반한 이 지도원칙은 비차별, 보호에 대한 권리, 인도주의적 원조, 아동·장애인 및 기타 약소자에 대한 특별보호, 실종된 가족이 어찌됐고 어디쯤에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구할 권리 등을 포함하여 국내 난민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국제 기부자들은 자신들의 협력자인 비영리 조직들이 마찬가지로 인권원칙을 구체 프로젝트에 도입하고 원조 노력을 조정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하라

우리는 기부국 정부(국제 기구, 민간단체)에게 원조의 모든 형태에 인권에 기반한 접근을 채택할 것을 촉구한다. 이 접근법은 투명성, 책임성, 참여, 비차별, 역량발전을 요구한다. 권리 소유자로서 아이티 인민의 역량을 강화하고, 아이티 인민의 목소리가 들릴 수 있는 통로를 만들고, 아이티 인민이 자신들의 나라를 재건설하고 발전시키는데 능동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기부자들은 또한 '원조 효과성에 관한 파리 선언'(The Paris Declaration on Aid Effectiveness, 2005년 3월 2일 제2차 고위급 회담에서 승인됐다. 100명 이상의 장관들과 기관장들이 자국과 조직들이 원조 목적의 조화, 조정 및 모니터 가능한 지표들로 결과를 운영할 것을 약속했다.)의 원칙들을 따라야만 한다.

투명성은 정부의 활동에서나 기부자의 활동에서나 필수적이다. 투명성은 사회 모든 부문의 아이티인들이 접근가능한 방식으로 구조, 회복 및 재건 전략의 개발 및 집행의 모든 국면에 관한 정보의 시기적절한 발행을 요구한다. 기부국 정부와 기부를 받는 조직들은 정부의 기부와 사적인 기부의 양, 그 기부금이 사용된 프로젝트에 대한 공적인 보고를 조정해야만 한다. 투명성의 부족은 정치적 안정에 유해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지난 10월, 네 번의 폭풍이 아이티를 황폐화시킨 후에 상원은 아이티에 대한 원조에서 1억9700만 불의 사용에 투명성이 결여됐다는 이유로 아이티의 수상을 탄핵할 것을 투표했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기부국 정부, 국제기구, 집행하는 민간단체들은 아이티 인민에게 설명 책임을 져야 한다. 기부자와 국제기구는 아이티 정부와 더불어 자신들이 계획한 지원에

대해 공동의 인권 평가를 취해야 한다. 이는 권리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고 일단 재정적 이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진전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보장하기 위함이다. 책임성은 또한 원조를 받는 지역사회가 문제점을 알리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요구한다. 국제사회는 원조 배분에서의 부패나 남용을 보고하기 위한 국내 콜센터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은 지역사회, 시민사회, 약소자, 역시 지진의 영향을 받은 농촌 인구 및 여성을 포함하여 아이티 사회의 전 범위에서 높은 수준의 참여를 요구한다. 이러한 참여는 프로그램 수혜자와 마지못해 접촉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능동적이며 자유롭고 의미 있는 것이어야 한다. 참여는 구조, 회복, 재건 전략의 개발 과정, 초기 욕구 평가에서부터 계획, 집행, 평가까지 각 단계에서 있어야 한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에서 기본적인 비차별은 아이티의 가장 가난하고 가장 취약한 사람들에게 원조와 역량강화에서 우선성을 둘 것을 요구한다. 의식적인 접근과 포함이 요구된다.

궁극적으로 모든 국제 행위자들은 모든 아이티인의 인권을 실현할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아이티 정부의 역량을 발전시키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과거에 기부국 정부와 국제기구들은 흔히 이와 대조적인 발전구조와 인도주의 구조를 만들었다. 따라서 기본권을 증진시키고 이번 지진과 같은 비극에 대응할 수 있는 아이티 정부의 역량을 약화시켰다. 미국 정부는 국내 기관을 통해 아이티에 대한 비상 구제를 조정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기부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아이티 정부로 하여금 구조, 회복, 재건의 전 단계에서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큰 규모에서 이런 전략을 채택해야 한다. 원조 노력의 모든 단계에서 기부자들은 아이티 정부와 손잡고 일해야만 한다. 모든 노력은 아이티 정부에 의해 조정되고 아이티 정부와 더불어 해야 한다.

비상 사태와 발전 원조를 위한 충분한 기금을 보장하라

비상 지원이 당장 오늘 필요한 동시에 기부자들은 아이티에 대한 원조에서 강력하고 자급적인 국가 건설, 모든 이에게 인권을 보장할 역량 건설을 목적으로 장기 전망을 채택해야 한다.

비상 원조가 기부자들이 이미 전달하기로 약속했던 발전 원조를 대체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기금은 구조와 재건 노력을 위해 긴급하게 요구된다. 하지만 아이티의 장기 발전을 위한

기부 사회의 헌신 없이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다.

기부자들은 발전 기금을 제공하기로 한 자신들의 과거의 약속을 수행해야만 한다. 지난해 기부자들은 발전 원조에 7억6000만 불 이상을 약속했으나 그 대부분을 아이티는 아직도 받지 못했다. 아이티 정부는 예산의 제약 속에서 아이티 인민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이런 기부자들의 약속에 의존하고 있다. 기부국들은 약속을 이행해야 하고 그 기금의 지불이 아이티 정부가 우선순위로 정한 것과 일치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아이티인의 일상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다. 아이티 인민은 자국을 재건하기 위해 작년 4월에 약속됐던 장기간 원조와 이번 주에 약속된 비상 원조 둘 다를 필요로 한다.

아이티 구호? '역겨운 부채' 탕감부터!¹⁾

류은숙 /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

참사로 신음하는 아이티를 돕자는 목소리가 높다. 아이티라는 나라 이름조차 낯설어 하던 많은 이들이 가난과 혼란으로 허덕이는 아이티 국민들을 보며 눈물 짓는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대해 답답해 하는 이들도 있다. 아이티 국민들을 돕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다. 당장 급한 지원과 아울러, 아이티를 가난과 혼란의 수렁으로 몰아 넣은 원인을 차분히 살피는 일도 필요하다는 것.

아이티 국민들이 겪는 가난을 설명하려면, 1789년 프랑스 혁명까지 거슬러 올라야 한다. 당시 프랑스 국민공회는 노예 해방을 단행했다. 자유, 평등, 우애라는 혁명 이념을 끝까지 밀어붙인 결과였다. 그러나 흑인 노예들이 '진짜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기란 까마득한 일이었다. 이런 까마득한 길을 걸어간 이들이 세계 최초의 흑인 공화국이며 아메리카 대륙 두 번째 독립 국가인 아이티 공화국을 세웠다.

하지만 감동은 여기까지였다. 백인들의 독립 국가인 미국과 달리, 아이티 공화국은 건국 당시부터 빛의 늪에 빠진 상태였다. 독립의 대가로, 프랑스 정부가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했던 것. 노예 혁명, 독립 혁명에 대한 보복 성격이 짙었다. 이렇게 생겨난 빛의 굴레는 아이티 국민들을 두고 두고 가난과 혼란 안에 가뒀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는 참상은 그 결과다.

캐나다 세계화 연구 센터홈페이지(<http://globalresearch.ca>)에 최근 실린 글을 소개한다. 아이티 국민들의 고통을 진정으로 덜어주고자 한다면, 프랑스와 미국 등이 '역겨운 부채'부터 탕감해야 한다는 내

1)이 글은 "아이티: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 원조인가?"라는 제목으로 주간인권신문 <인권오름>에도 실렸습니다. <인권오름>기사들은 정보공유라이선스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대해 알려면, <http://www.freeuse.or.kr> 을 찾아가면 됩니다.

용이다. 애초 무리한 요구였던 부채를 그대로 둔 채 이뤄지는 기부 활동은, 이미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상환금을 돌려받기 위한 몸짓에 불과하다는 해석도 있다.

다음은 류은숙 인권연구소 '창' 활동가가 번역한 글 전문이다. 원문 제목은 "아이티 : 역겨운 부채를 갚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지원?(Haiti: Humanitarian Aid to Repay an Odious Debt?)이다.

재건 모델에 대한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지 않는다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구제 작업 중의 하나가 2004년의 쓰나미 구제 노력과 성격상 유사한 것이 될 큰 위험이 있다. 아이티는 7 리히터 규모의 강진으로 부분적으로 파괴됐다. 우리는 눈물을 쏟았고 미디어는 계시록적 이미지를 퍼부으면서 우호적 국가들이 한 재정적 약속에 대해 보도한다.

아이티가 가난과 "가난의 저주"로 강타당한 나라이며 이 나라의 재건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 초점은 아이티에 있다. 논평들은 끔찍한 지진 너머를 보지 못한다. 우리는 더 이상의 설명 없이 아이티가 최빈국 중의 하나라는 얘길 듣는다. 가난이 그냥 발생한 것처럼, 구제할 수 없는 상황인 것처럼 믿게끔 우리는 유도된다. "아이티는 저주받은 땅이야"라고.

최근의 자연 재해가 상당하고 예측할 수 없는 물질적 피해와 인명 피해를 낳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비상 원조는 필요하다는 점에 모든 사람이 동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지진이 빈곤과 불결함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 이 나라는 자국을 재건할 수단을 빼앗겨 왔기 때문에 재건을 필요로 한다. 아이티는 자유로운 국가도 주권 국가도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아이티의 국내 정책 선택은 지속적으로 바깥에서 오는 명령의 압박 하에 있는 정부와 지역 엘리트들이 수행하는 술수에 의해 취해졌다.

기껏해야 아이티는 폭력적이고 가난하고 억압적인 국가로 묘사된다.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에 맞서 힘든 투쟁 후에 1804년 독립을 쟁취한 것을 기억하는 논평은 거의 없다. 아이티인의 인간적인 접근, 인권을 위한 아이티인의 투쟁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야만성과 폭력이 아이티인에게 부여된 특성이다. 에두아르도 갈레아노는 "백인의 저주"에 대해 말한다.

"도미니카 공화국이 끝나고 아이티가 시작되는 국경에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경고문이 있다. 나쁜 길. 저편에는 검은 지옥이 있다. 피와 기아, 빈곤, 역병."

따라서 아이티 인이 수행한 해방 투쟁을 되돌아보는 것이 필수적이다. 왜냐하면 노예제와 식민지에 반대하여 아이티인이 수행한 이중의 혁명에 대한 보복으로, 프랑스가 독립을 대가로 요구

한 1억5000만 프랑(즉, 당시의 프랑스의 연간 예산)을 이 나라는 몸값으로 상속했기 때문이다. 1825년, 프랑스는 결정했다. "산토도밍고(아이티의 식민지 시절 이름)의 프랑스 영토의 현 거주자들은 프랑스 연방 예금 및 위탁 사무소에 총 1억5000만 프랑을 5번으로 나누어서 매년 지불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 기한은 1825년 12월 31일이다. 이 돈은 보상을 요구하는 이전 식민지 이주민들에게 보상하기 위해 사용될 것이다."

이 돈은 오늘날의 210억 달러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아이티는 아주 큰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부채는 아이티의 많은 자연 자원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기 위한 신식민지의 도구가 됐다.

따라서 이 몸값의 지불이 아이티 국가의 설립 요소이다. 법적인 용어인 이것의 의미는 독재 체제가 계약했고 이 계약이 인민의 이익에 반하여 사용됐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프랑스가, 그다음에는 미국(1915년부터 아이티에 영향력을 확대한)이 전적으로 이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는 과거의 고통스런 책임에 대처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른다. 2004년 레지 데브라 위원회 보고서는 "법적으로 근거 없다"는 이유로 이 부채 지불을 없앨 것을 선호했고 이런 행동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아이티 정부의 요구는 프랑스에 의해 거부됐다. 어떤 보상도 보증되지 않았다. 더욱이 프랑스는 "베이비 독(Baby Doc)" 뒤발리에(아이티의 잔혹한 독재자, 아버지 뒤발리에의 파과독이라 불렸다)에게 정치적 난민 지위를 주었고 그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독재자에게 망명지를 제공한 부끄러운 역할을 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뒤발리에의 지배는 1957년 미국의 도움으로 시작됐고 1986년까지 지속됐다. 이때 아들 "베이비 독"은 대중 봉기로 권좌에서 내쫓겼다. 서구 국가들이 광범위하게 지원한 폭력적인 독재는 거의 30년간 아이티를 황폐화했다. 그것은 부채 지수의 성장으로 나타났다.

1957년과 1986년 사이에 외채는 17.5배까지 증가됐다. 뒤발리에가 도망칠 당시에 외채는 7억5000만 달러에 달했다. 그리고 이자와 벌금을 통해 18억8400만 달러로 상승했다. 이 부채는 가난한 인구의 이익에 복무하기는커녕 실제로는 지배 체제를 부유하게 하는 걸 목적으로 했다. 따라서 역겨운 부채이다. 최근의 조사에서 드러나기는 뒤발리에 가족의 개인 재산(그들의 서구 은행 계좌가 잘 보호하고 있는)은 9억 달러에 달한다. 다른 말로 하면 "베이비 독"이 도망친 당시의 이 국가의 전체 부채액보다 더 큰 액수다. 뒤발리에 독재 기간 동안 횡령된 재화와 자산을 아이티 국가로 환수하기 위한 재판이 현재 스위스 법원에서 열리고 있다. 현재 이 자산은 스위스 은행 UBS에 동결돼있고 이 은행은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받아들이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해왔다. 대조적으로, 장 베르트랑 아리스티드는 전폭적인 지지로 선출됐다. 그러나 그는 곧 부패 혐의를 받았

고 미국의 꼭두각시로 복귀하고 중국에는 미군에 의해 추방됐다. 불행하게도 아리스티드도 부채와 기금 횡령에 관련해서는 무고하지 않다. 더욱이 세계은행에 따르면 1995년과 2001년 사이에 부채 상황(즉, 원금과 변상된 이자)은 3억2100만 달러에 달했다.

지진에 뒤따라 선언된 모든 현재의 재정 원조는 이미 부채 상환으로 상실된 것이다!

최근의 추정에 따르면 아이티 외채의 80% 이상이 세계은행과 미주개발은행에게 진 것이다. (각각 40%씩) 이들 은행의 지도 아래서, 정부는 "구조조정계획"(지금은 "빈곤축소전략보고서"로 위장된)을 적용했다. 더 많은 대부를 계약한 대가로, 아이티는 일부 하찮은 양의 부채 경감이나 말소를 받았고 이것은 채권자들에게 긍정적인 빛을 던졌다. 외채과다 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에 아이티가 받아들여졌는데 이것은 콩고 공화국의 사례에서처럼 전형적으로 역겨운 부채 세탁 술수이다. 역겨운 부채는 새로운 소위 정당한 대부로 대체됐다. 제3세계외채탕감위원회는 이런 대부를 역겨운 부채의 핵심으로 본다. 왜냐하면 이 대부가 오래된 빚을 갚는 데 사용되기 때문이다. 범죄는 계속해서 저질러진다.

2006년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 파리 클럽이 외채과다최빈국에 대한 외채경감 방안(HIPC)에 아이티를 포함할 것을 수용했을 때, 공적 외채의 전체적인 양은 13억5700만 달러였다. HIPC가 완수된(2009년 6월) 때, 부채는 18억8400만 달러였다. "부채를 감당할 만하게 하게 만들기" 위해 12억 달러의 부채 말소가 결정됐다. 반면에 구조조정계획은 아수라장을 만들었다. 특히 농업부문에 서 그랬고 그 결과가 고조에 달한 2008년의 식량 위기였다. 아이티의 농부들은 미국 농산물의 덤핑으로 고통받는다.

"워싱턴, 유엔, 국제금융기구, 세계은행이 지원하는 거시경제 정책들은 국내시장을 발전시키고 보호할 것을 필요로 하는 농부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 정책의 유일한 관심은 세계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 최저가에 생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제금융기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국제금융기구는 능력 있는 이 영역에서 적절한 지원을 하는데 역할을 할 준비가 돼있다."

최근의 국제적 호소에서 언급됐듯이, "아이티는 연대와 아이티 인민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촉구한다". "많은 아이티 조직들과 함께, 최근 몇 년간 우리는 유엔군에 의해 의한 군사 점령을 비난해왔고 부채 메커니즘과 자유무역, 이것들의 자연 환경에 대한 약탈, 초국적 이익의 침공을 통해 강요된 지배의 영향에 반대해왔다. 자연 재해에 대한 이 나라의 취약성(상당 정도 환경 파괴와 기본적 인프라의 부채와 국가 역량의 체계적인 약화로 인해 야기된)은 이들 정책과 떼어내서 봐서는 안 된다. 이들 정책은 역사적으로 아이티 인민의 주권을 해쳐왔다.

이제는 유엔아이티안정화지원단(MINUSTAH)을 형성한 정부들, 유엔, 특히 프랑스와 미국, 라틴 아메리카의 정부들이 아이티 인민의 기본적 필요에 반하는 행위를 수정해야 할 때이다. 우리는 이들 정부들과 국제기구에 요구한다. 군사 점령을 진정한 평화 사절단으로 대체할 것과 여전히 아이티를 빨아먹고 있는 부채의 조속한 탕감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부채 문제와 무관하게, 원조가 2004년 12월 말 아시아 국가들을 강타한 쓰나미나 2004년 아이티를 강타한 사이클론 후에 제공된 것과 같은 형태를 취할 것이 우려된다.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기금의 상당 부분은 외국이나 지역 엘리트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갔다.

이들 "관대한 기부"의 대다수는 채권국들에서 왔다. 기부금을 주기보다는 아이티의 부채를 전부, 무조건적으로, 당장 탕감하는 것이 선호될 만하다. 이 돈의 대부분이 외채를 갚거나 채권자나 지역 엘리트의 이익에 기반해 결정된 "국가개발프로젝트"를 집행하기 위해 사용될 것을 알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기부를 말할 수 있을까?

이들 당장의 기부 없이는 부채 상황을 보장하는 게 가능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므로 적어도 기부금의 절반은 역겨운 부채에 해당한다. 주요 국제회의는, G8이건 G20이건 간에 아이티의 발전이라는 면에선 어떤 진전도 낳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아이티에 대한 신식민지 지배 보장을 돕기 위한 도구를 재건할 것이다. 그 목적은 최근의 부채 구제 계획 이래의 사례에서 그랬던 것처럼 굴복의 기반인 부채 상황이 지속되는 걸 보장하는 것이다.

반대로 아이티가 존엄하게 국가 주권을 스스로 재건하는 것이 근본적 문제다. 아이티에 대한 전적이고 무조건적인 부채 탕감이 더욱 보편적인 행동 과정을 향한 첫 번째 조치여야 한다. 국제 금융기구들과 경제협력협약들에는 새로운 대안적인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긴급하다. 프랑스와 미국으로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아이티를 착취해 온 가장 산업화된 국가들은 이 나라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고 아이티 인민들의 조직에 의해 통제되는 기금으로 보상해야 한다.

No 'Hope for Haiti' Without Justice¹⁾

Mark LeVine/ visiting professor, the Center for Middle Eastern Studies at Lund University

On Friday, the US' leading entertainers will once again organise a star-studded telethon in order to raise money for victims of an almost incomprehensible tragedy - the third time they have done so in less than a decade.

The first, in the aftermath of the September 11 attacks, understandably avoided any sort of critical political imagery or discourse in favour of uniting the country in support of the victims.

The 2005 telethon in response to the devastation of New Orleans by Hurricane Katrina occurred at a tenuous political moment, as violence was flaring in Iraq and Americans were beginning to question President Bush's true motives for invading the country.

The massive incompetence surrounding the government relief effort was already apparent, but apart from rapper Kanye West declaring - to much criticism - that "President Bush doesn't care about black people," none of the artists who performed or spoke addressed the glaring structural problems that allowed the hurricane to produce such unprecedented damage.

Four-and-a-half years later, the endemic problems that exacerbated the hurricane's damage remain largely unaddressed.

But they are far from public view (aside from the poor and working class public of New Orleans, that is) and outside the cheery narrative of rebuilding and recovery symbolised by

1)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January 21, 2010

the success of the New Orleans' football team, The Saints, who will host the city's first Conference Championship game in the refurbished Superdome, which during the height of the Katrina disaster housed thousands of flood refugees.

As the carnage of the largest earthquake to hit Haiti in 200 years comes into full view, the biggest stars of Hollywood and the music industry are coming together for a "Hope for Haiti" telethon.

But there can be no hope for Haiti without justice, and no justice without an honest appraisal of the centuries-long history that set the country up for such a devastating political and social collapse in the wake of the earthquake.

A history largely ignored

The roots of this collapse are as deep as they are unknown - or unappreciated - by the majority of Americans - although it is widely discussed across the globe.

Haiti, then Saint Dominigue, was among the first islands "discovered" by Columbus, and became France's - and likely Europe's - most profitable colony. Its more than 800,000 slaves produced upwards of half the sugar and coffee consumed in Europe.

The discourse of freedom and equality underlying the American and French revolution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island's African slave population, who led the first successful slave revolution in the Western hemisphere, creating the first free black republic in the wake of their successful independence struggle against Napoleon's army.

Far from embracing the new republic - the second independent country in the Americas - the administration of President Thomas Jefferson, under pressure from southern slave-holding politicians, refused to recognise Haiti.

Just as Communist Cuba was deemed to constitute a grave threat to capitalist America a century and a half later, a revolutionary republic of free Africans set a very bad precedent for its huge neighbour to the Northeast, where slavery was still a major component of the economy.

Rather than finding an ally in the still young US, Haiti was shackled with a crushing debt by France as the price of independence.

From democracy to dictatorship

After a century of alternating democratic and dictatorial rule, Haiti was invaded and occupied by US marines from 1915 to 1934, during which time the US overturned laws that restricted foreign ownership, allowing American corporations to gain a permanent foothold in the country's agriculturally dominated economy.

The first two decades of post-occupation politics saw as many coups, until stability of a sort was attained with the election of Francois Duvalier, known as "Papa Doc", in 1957.

But his rule quickly deteriorated into a brutal dictatorship, equalled in its corruption and violence only by that of his son, Jean-Claude ("Baby Doc"), who ruled from 1971 until 1986.

Despite the intense brutality and corruption of the regime, the US supported Duvalier as a counterweight to neighbouring communist Cuba and because of his friendliness to US corporate interests.

After widespread protests forced Duvalier from power, a series of military caretaker government reforms eventually led to the election of the former priest, Jean-Bertrande Aristide, in 1990 on a platform that included land reform and reforestation as well as aid to poor farmers and increased wages and rights for the increasing number of sweatshop workers.

However, Aristide's radical economic reforms alienated the country's elite, who supported his overthrow and exile the next year, likely with US backing or at least acquiescence.

Aristide returned to power under a US-backed UN mandate in 1994, and turned over power to a democratically elected successor, Rene Preval, in 1996.

Aristide once again became president in 2000 under a cloud of political infighting and

election irregularities.

His new term was marred by violence and opposition accusations of violence and corruption, and he was ousted again in 2004 with the support of the administration of George Bush, who provided a military and diplomatic "escort" for his departure from Haiti, from which he still remains in exile in South Africa.

Price of economic liberalisation

As with most parts of the developing world, the present-day concentration of urban poverty in Haiti, which led to millions of people living in the ramshackle slums that literally disintegrated during the earthquake, owe their origins to policies of economic liberalisation and privatisation begun in the mid-1980s.

Their goal was to open Haiti even further to foreign economic penetration and control in the age of globalisation (Jamaica underwent a similar process, as did other Caribbean countries, with almost as bad results).

Repeating a process as old as industrial capitalism itself, the degradation of Haitian food production and the increased foreign control of land through peasant indebtedness led to the creation of a huge surplus labour pool that would become the engine of a low-cost labour-led export oriented economy controlled by the country's elite and their US and European allies (particularly USAID) by the 2000s.

Privatisation programmes imposed by the IMF, World Bank and other international lenders led to even greater control of the country's agricultural sector land by US and other multinational corporations.

This process was epitomised by the shift in agriculture from local production to export oriented crops and to the break-down of Haiti's rural economy with the import of heavily subsidised American products - exemplified by "faux-cheap" American rice with which the locally produced rice could not compete.

Even aid programmes intended to help desperately poor Haitian women provided credit to

buy cheap foreign products, further undermining the fragile agricultural economy in the name of progress.

One of the most fertile lands in the Western hemisphere suddenly became a net importer of many basic foodstuffs, leading to even more widespread poverty, malnutrition and an exodus of increasingly landless farmers to the cities in search of any kind of work. The growing unrest produced by this process was one of the factors that forced Baby Doc from power in this period.

The first Aristide government tried to change this situation by coordinating rice production, providing seed and fertiliser to poor farmers, and managing imports so as to mitigate the impact of cheaper US-grown rice on the local market, but these policies were heavily opposed by American corporations operating in Haiti, backed by the US government and lenders such as the IMF.

Together, they oversaw a regime in which Haitian peasants grew ever more indebted and, after Aristide was ousted, were according to analysts, "driven into the ground" as what little state support there was ended.

This dynamic continued after his return, part of the price of which was clearly his markedly toning down his reform agenda and acquiescing to US-backed reforms that many Haitians deride as the "plan of death".

With his reform agenda crippled, his government became marred by charges of violence and toleration of drug-running and other criminal activities.

A disappearing state

One of the most striking things about the aftermath of last week's earthquake is the almost total absence of the Haitian state, which seemed to collapse with the parliament and presidential palace.

But the absence of any kind of effective state response is not surprising; indeed, it is the

result of deliberate policies set in place during the last three decades under the neoliberal structural reforms supervised by the US and international lenders.

As one local agronomist put it 15 years ago: "In the neoliberal system they say the state should 'be efficient,' but that is not what they really want. They want the state to disappear."

Disappearing states is one of the hallmarks of the structural adjustment programmes pushed by the "Washington Consensus" model of liberalisation of economies across the developing world precisely because a robust state beholden to its people would never tolerate such policies.

In Haiti this process has led to increased poverty, degradation of land (foreign corporations have much less interest in preserving the integrity and sustainability of the land and surrounding ecosystems than local farmers) and inequality almost everywhere it has been practiced.

As in the "banana republics" of Central America in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overwhelming power of the "big brother" to the north - the US government and corporations tied to it - has made creating a healthy, balanced and self-sufficient economy impossible to imagine.

And so, despite the fact that for centuries Haiti's land has been among the richest and most fertile in the world, it remains "the poor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as foreign media routinely describe even in the best of times.

Aristide's US-backed removal in 2004 came on the heels of a US-imposed trade embargo after he began to balk at continuing to implement the demanded reforms which drove peasants and workers alike into even deeper poverty.

The governments installed by the US - and, disgracefully, backed by the United Nations and an increasingly corporatised international NGO system that is largely unaccountable to ordinary Haitians - have proved even more corrupt than those of the pre-Aristide era.

New vision, same old vision

This dynamic is crucial, for when former US President Bill Clinton and other officials involved in Haiti's perpetual "development process" speak of how the country was "turning a corner" or "on the verge" of renewed growth and stability, what they mean is that internal opposition to the disastrous neoliberal programmes supported by Presidents Bush, Clinton, Bush and now Obama, has been tamped down to the point where they can be implemented without too much resistance - in part by a UN 'stabilisation mission' that has been marred by violence against Haitians and the support of the country's elite.

Indeed, the Clinton-Obama vision for Haiti's future, already in play before the earthquake, is to transform Haiti into another Caribbean US-satellite country, with a largely privatised and deregulated economy based on low-wage, ecologically dubious tourism and sweatshop industries and where, like its neighbour Jamaica, increasing poverty and inequality are largely hidden from view.

Rather than invest in capital and local infrastructure to help build a self-sufficient economy, Clinton and other foreign policy-makers want to create "more jobs by lowering the cost of doing business," which inevitably includes lower wages and relaxed labour and environmental laws.

The last coup union organisers and other activists are routinely and often violently attacked by the government, while Aristide's Lavalas party, the most popular in the country, remains barred.

Ultimately, the policies of the last four US administrations have been successful in crushing most opposition to the reforms that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isastrous consequences of the earthquake.

In the wake of this unprecedented destruction what best-selling Shock Doctrine author Naomi Klein has described as "disaster capitalists" are already hovering like vultures over the human, ecological and economic wreckage, waiting to come in and complete the transformation of Haiti into another Caribbean theme park-slash-sweatshop, with an unprecedentedly desperate population unable to offer even the modicum of resistance offered during the last decade.

Whitewashing history

Haiti's complex and, from an American point of view, largely unpleasant and unedifying history must be acknowledged if there is to be any hope that the country's internationally financed reconstruction will not merely lay the groundwork for more poverty and disasters.

Sadly, Obama, who famously admitted in his 2009 Cairo speech that the US had in fact overthrown the elected government in Iran, has so far said nothing about the even more extensive US history of meddling in Haiti.

Instead, writing in *Newsweek*, the president declared that "at long last, after decades of conflict and instability, Haiti was showing hopeful signs of political and economic progress".

Needless to say, if there was any substantive progress, the state would not have utterly disappeared in the rubble of the temblor.

Seemingly oblivious to the role of the US and UN in producing Haiti's current woes, Obama declared that: "The United States will be there with the Haitian government and the United Nations every step of the way."

If the past is any guide, this does not augur well for the country's future.

Indeed, Gerald Zarr, the former USAID Haiti director, was more honest in explaining that "Haiti's going to have to change" - which is code for being even more acquiescent to the kinds of reforms that helped produce the disastrous consequences of the earthquake in the first place.

If there is a moment when the American and global publics could be forced to confront this dynamic it will be when George Clooney and other often-outspoken Hollywood stars, joined by Haitian-born hip-hop legend Wyclef Jean and other musical artists, take to the airwaves to raise money for the country.

Illusion of reconstruction

Haiti certainly needs all the foreign aid it can get in this time of desperation. But if the telethon limits itself to showing heartbreaking images and calling for humanitarian aid without calling on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UN and the world more broadly to address the structural dynamics that produced this disaster and radically reorient their policies towards Haiti, there is little doubt that most of the funds raised will wind up lining the pockets of the corrupt local elite and their US and international corporate and NGO allies.

Ordinary Haitians will continue to suffer, reconstruction will be an illusion or confined to tourist destinations far from Port-au-Prince and the country will be ripe for the next man-made natural disaster.

Friday is a chance for artists to assume their historically crucial role of speaking the truth to power and to the people, even when it is hard to digest.

It will be interesting to see if Clooney, and artists such as Bono and Sting who have advocated so eloquently in the past for the rights of the poor and oppressed, use their immense social capital to educate the public and challenge political and corporate leaders finally to behave in a morally responsible manner towards a country that has known little hope, and even less justice, since its people began their still unfinished struggle for freedom and independence over two centuries ago.

Disasters are Big Business¹⁾

William Bowles / a frequent contributor to Global Research

I am staggered. There are 10,000 'NGO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in Haiti, one for every 900 inhabitants and each one of them has no doubt at least one Westerner working within, yet aside from the Cuban health workers, it seems they could do nothing until the gringos arrived with their Blackhawks and nuclear-tipped aircraft carrier and of course, the 82nd Airborne, paying yet another 'visit' to this benighted and super-exploited land to 'secure' the place for the locust storm of aid to come (too late for too many).

Now I've never been a fan of 'NGOs' not only because my own experience with them has been less than edifying but because they are the direct result of 'benign neglect' on the part of the state. In other words they initially appeared to fill a void left when states washed their hands of the mess they'd left behind or they just ditched their responsibilities.

But unlike governments who are, in theory anyway, answerable to their electorate, 'NGOs' are answerable to no one. They are not elected, they are not representative. In their way they are more like neo-colonial 'stand-ins' for the former colonizers, at least at the 'social services' end of things. Well, it seems many of the 10,000 have been tested a

1)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2010.1.22

nd found wanting.

Now this is not say that there aren't thousands, even tens of thousands of people who genuinely want to help (Brits have so far donated more than £30 million to Haiti Relief) but compare the role of the Cuban medical teams with most of the other 'NGOs' working in Haiti, all ten thousand of them. The Cubans have the direct backing of the Cuban state with all that that entails. Moreover, they were able to draw on their own experiences with disasters to which Cuba is no stranger and react immediately and effectively (not that you'd have seen it reported much on your TV screens but they were first on the scene).

I have no idea how many people in the 'developed' world owe their living to other people's misfortunes but it surely must run into millions and given that the most advanced of the capitalist states now have largely 'service' economies under which I assume 'NGOs' fall, disasters make a major contribution to their economies.

The Media: Old habits die hard

Integral to this is the media's vested interest in disasters (the bigger they are, the more profitable they are) and moreover, putting the right 'spin' on how the disasters are presented to the captive, metropolitan audience is absolutely vital as we have witnessed with the media's 'take' on the Haitian catastrophe. So much so that questions are now being asked about the role the media played in stopping aid from getting in because it kept hyping the 'violence', 'looting' and 'armed gangs' aspect of the disaster.[1]

Just compare the media coverage of the Tsunami in Asia in 2004 with that of Haiti. Did we see daily headlines about the problem of 'security' or 'looting', or 'armed gangs' following the devastating Tsunami? No we did not. But why the enormous difference in the media coverage of these two, equally cataclysmic events?

The problem for the media is that they have already demonized the people of Haiti, not only through historically-rooted, racist myths about for example, 'Voodoo' (actually

Voodun, an animist/ancestor-worship religion that came from West Africa with the slaves), but the way contemporary events in Haiti have been presented to Western audiences. You know the stuff, 'gangs', drugs, violence, the Ton-Ton Macoute, marxists, revolutionary priests, 'failed state', corruption, 'dictators' and dictators. This is the picture the media/state have presented to us. They made it so.

There is no history, no mention of our, that is Western culpability in the inability of the Haitian state to survive intact, let alone thrive and prosper after such a disaster. This is what the US, Canada and France have turned Haiti into: nothing more than a source of cheap labour for US offshore manufacturing and some tourism (who amazingly, still arrived just after the quake struck and took up residence.

"As surviving Haitians fought over scraps of food, luxury cruise ship passengers frolicked heedlessly Monday at a resort just 81 miles from the misery transfixing the world. Royal Caribbean's gigantic 3,100-passenger Navigator of the Seas stopped at a north Haiti beach so tourists could parasail, snorkel and chow down on barbecue. The tourists went ashore at Labadee, a lavish and heavily guarded private beach leased by the cruise line where passengers bounce on trampolines, sip cocktails in a hammock and shop at an ersatz "native market." – 'Royal Caribbean cruise ships such as Navigator of the Seas still escorting vacationers to Haiti' , New York Daily News, 19 January, 2010.

Haiti, formerly one of the richest of the Caribbean nations, has been denuded of its forests, import substitution (imposed by the IMF and the World Bank) bankrupted the rural population who were forced to relocate to the cities in order to survive, hence the scale of carnage. US-backed/sponsored/instigated coups litter the country's history as well as long term military occupation. The West have turned Haiti into a 'basket-case' unable to respond in any meaningful way not only to the catastrophe but to care for its citizens. This is the West's legacy, never mind its 'largesse' after the fact. This too is Business.

All of the above and more, underpins the way the media approaches a culture that has been under Western assault for two hundred and six years (since 1804 when the first free Black Republic in the (Western) world was declared).[2]

Is it any wonder therefore that it dare not go down the road that challenges the misconception that Western intervention is anything other than 'humanitarian' and because 'we feel your pain'.[3]

The way media handles all things Haitian is perhaps exemplified by the issue of the Haitian 'orphans' being stolen by the West. I first came across a reference to it as a single sentence in a BBC piece and I referred to it at the time. The BBC piece just mentioned it in passing, but today, four days later the BBC ran a major news item on the issue (see below).

I found it incredible at the time and I find it even more incredible now that serious questions are not being asked by the media. How come virtually at the beginning of the catastrophe, with the airport barely functioning and/or crowded with planes, one hundred or so 'orphans' were whipped out, apparently to the US and Holland? The operation was surely pre-planned, how could it be otherwise?[4]

Yet the thefts continue with European countries cuing up to get their share of 'orphans'. And it seems judging by the overall tone of the BBC's piece, it doesn't see anything wrong with idea. However, others are less sanguine:

"Bringing children into the US either by airlift or new adoption during a time of national emergency can open the door for fraud, abuse and trafficking" — Joint Council on International Children's Services, a US advocacy group

"Orphan children charity, SOS Children's Villages, has condemned media reports claiming that Haiti could be left with one million orphaned children as a result of the recent earthquake.

"SOS, the world's largest orphaned children charity, says that the figures are massively exaggerated to generate big headlines and irresponsible as it presents a false impression of the real needs on the ground.

"SOS claims that providing for every orphaned child is possible and inflating the numbers can lead to orphaned children being unnecessarily removed from an area before extended families and best interests can be considered.

"The charity cites a similar over-reaction by the media to the Asian Tsumani in 2004 when reports were published of over 1.5 million affected children, "most orphans", whereas the final total was around 5,000."" – 'SOS CONDEMNS MEDIA SENSATIONALISM OVER INFLATED HAITI ORPHAN 'CRISIS' , 19 January, 2010[5]

It seems Black Haitian babies are okay to 'import' to no doubt loving parents but not when they're all growed up and able to make their own way there, as the cordon sanitaire being assembled around Haiti shows.[6]

☐ Notes

1. One writer accused the major media of commandeering scarce resources (see 'Journalists hindering Haiti relief?') but I think it's wide off the mark.
2. No, Mister! You Cannot Share My Pain! by John Maxwell, Black Agenda Report, 20 January, 2010
3. See for example, 'Haiti's Robespierre: The Tragedy of Toussaint L'Ouverture' By BJÖRN KUMM
4. See 'Orphaned Haitian children to be allowed into US' , BBC News Website, 19 January, 2010
5. See the Daily Mail's hysterical pronouncement, 'Crisis of the one million Haitian orphans as Unicef warns the devastation has jumped to 'unbearable proportions' , blown up a couple more notches no doubt by this typical Daily Mail piece which tells us "[A]id groups fear as many as one million more on the island have been left without one or both parents following the last week's devastating earthquake." One assumes that one million orphans represents 1 million dead parents or is that two million dead parents?
6. "The unprecedented air, land and sea operation, dubbed "Vigilant Sentry", was launched as a senior US official compared Haiti's destruction to the aftermath of nuclear warfare.

U.S. Using Relief Mission As Pretext to Occupy Haiti¹⁾

Patrick Goodenough / Global Research

The United States is using the humanitarian crisis in Haiti as an excuse to occupy the earthquake-hit island nation, two of Washington's most vocal leftist critics in Latin America implied at the weekend.

To support the massive aid operation following last Tuesday's devastating quake, the U.S. was set to have up to 10,000 troops on the ground or in the waters off Haiti by early this week

But the presence of 82nd Airborne Division troops at Port-au-Prince airport, Air Force C-17s ferrying in equipment, water and supplies and the aircraft carrier USS Carl Vinson equipped with 19 helicopters off Haiti, along with the news that more troops and assets including a hospital ship are on their way, raised suspicions in some quarters.

"What is happening in Haiti seriously concerns me as U.S. troops have already taken control of the airport," Nicaraguan President Daniel Ortega said late Friday.

The Nicaraguan newspaper El Nuevo Diario said Ortega accused the U.S. of manipulating the tragedy to install troops in Haiti. It said the comments were made during a meeting with a Syrian government minister.

1) Centre for Research on Globalization, January 19, 2010

"Haiti seeks humanitarian aid, not troops," he said. "I hope they will withdraw troops occupying Haiti."

Ortega also expressed satisfaction that members of the Bolivarian Alternative for the Americas (ALBA) - a left-wing regional grouping led by Venezuelan President Hugo Chavez - were involved in the humanitarian effort. Nicaragua earlier sent 31 military doctors and Venezuela has sent doctors, medicines and food.

On Sunday Chavez weighed in, using his weekly television and radio show to question U.S. motives in Haiti, and accusing it of "occupying Haiti undercover."

"[President] Obama, stop sending troops to Haiti, send doctors," the official Venezuelan ABN news agency quoted him as saying. "Haiti does not need troops."

According to U.S. Southern Command, which is overseeing the U.S. military relief effort in Haiti, as of Sunday military aircraft and helicopters had airlifted 130,000 daily rations and 70,000 bottles of water into Port-au-Prince, with a further 600,000 daily rations scheduled to arrive in the coming days.

To alleviate the immediate need for water supplies, reverse osmosis water purification units were in Haiti to make water, with more en route.

Soon-to-arrive additional assets included more than 2,200 U.S. Marines onboard an amphibious ship, equipped with heavy lift and earth-moving equipment, a dozen helicopters and additional medical support capabilities, Southern Command said.

Amid continuing reports of gunfire, looting and gangs of young men armed with machetes roaming the streets of the stricken capital, the senior U.S. commander in Haiti on Sunda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security aspect of the humanitarian operation.

“Security is a fundamental part of humanitarian assistance,” U.S. Army Lt. Gen. Ken Keen said in Port-au-Prince. “You have to have a safe and secure environment in order to be successful.”

“The initial intent is to strategically place some of our soldiers so that they can help with that relief distribution,” Joint Chiefs of Staff Chairman Adm. Michael Mullen told a Pentagon briefing earlier.

“And then obviously we’re all focused on the security piece, as well,” he added. “We very much hope to stay ahead of that, but recognize that there are possibilities that we need to plan for.”

Chavez and other ALBA leaders frequently allege that the U.S. is conspiring to bring down their governments and has plans to intervene militarily in the region.

In recent months they have pointed to a U.S. agreement to use military bases in Colombia as supposed proof of such a plot. The U.S. and Colombia say the agreement is in support of counter narcotics operations in the region. It followed the refusal of Ecuador’s President Rafael Correa - another ALBA member - to renew a 10-year lease for the use of an Ecuadorian airbase for the anti-drug mission.

Haiti, Again?¹⁾

Phyllis Bennis / a fellow of the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There's a special kind of horror that comes from watching a human catastrophe escalate in front of our eyes, knowing that for most of us sending money is the only useful thing we can do. I remember seeing the terror of the Rwandan genocide explode, visible even on U.S. television, while up close and personal I watched the U.S. and French diplomats in the Security Council working openly to prevent the United Nations from acting to stop the genocidaires. And despite all the differences between natural disasters and those caused by human beings, the sense of helplessness is much the same watching the Haiti crisis from the safety of our living rooms.

This time, of course, the U.S. is not trying to prevent humanitarian assistance. President Obama made all the right commitments to the Haitian people, promising emergency assistance AND that we would stand with them into the future. He made clear that it is indeed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government to respond to humanitarian crises, and that's a good thing (even if he also anointed his predecessors to lead a parallel privatized response).

But the reality is, on the ground, some of the same problems that we've seen so many times before have already emerged, as U.S. military forces take charge, as the United Nations is pushed aside by overbearing U.S. power, as desperate humanitarian needs take a back seat to the Pentagon's priorities. Saturday morning's New York Times quoted Secretary of State Clinton saying, "we are working to back them [the Haitian government] up but not to supplant them." That was good. But then she said she expected the Haitian government to pass an emergency decree including things like the right to

1) The Hoffington Post, January 20, 2010

impose curfews. "The decree would give the government an enormous amount of authority, which in practice they would delegate to us," Clinton said. So much for "not supplanting them."

Already the U.S. military controls the airport. That means, according to the UN's World Food Program, that of the 200 flights in and out each day, "most of these flights are for the United States military. Their priorities are to secure the country. Ours are to feed." The WFP's planes full of food, medicine, and water were unable to land in on Thursday or Friday, because the priority was U.S.-defined security. On Saturday at least two Mexican planeloads of humanitarian supplies were turned away while several more planeloads of U.S. troops landed.

And given that at this time there was not widespread violence threatening to prevent the delivery of aid, this privileging of troops over water, medicine, and food may well have cost Haitian lives.

This militarization of the aid effort was based solely on the expectation, not the reality, of large-scale violence. The U.S. decision to send the Marines first, before doctors or water, was based on the anticipation that there would be violence that would prevent the distribution of supplies. In fact, despite widespread anger and looting, especially of food, incidents of real violence (though widely reported) have been relatively few and isolated. The bottom line must be who is in charge. With the Haitian government devastated, any necessary turn-over of authority should go to the United Nations rather than to the U.S. military. The U.S. should put the Pentagon's massive airlift capacity at the service of Haiti and the United Nations, not the other way around. Militarizing the provision of aid is not going to save the most lives.

Unfortunately, we've seen this all before. Below is an excerpt from my 1995 book, *Calling the Shots: How Washington Dominates Today's UN*. Seems too many lessons are still unlearned.

In the meantime, sending funds is still crucial. One of the organizations that has been

working on the ground in Haiti for more than 20 years, Partners in Health, is now doing extraordinary work responding to the emergency. You can reach them for updates of conditions on the ground and to donate funds at www.standwithhaiti.org/haiti.

Haiti: In Washington's Backyard

On the morning of September 22, 1994, the New York Times was filled with articles about the UN: Taiwan's bid for UN membership had been turned down; UN-sponsored negotiations on nuclear power plants were stalled; the UN faced continuing crises in Rwanda, Somalia, Bosnia. There were also two-and-a-half entire pages devoted to the thousands of U.S. troops occupying Haiti and the pending return of exiled President Aristide, and the words "United Nations" never even appeared.

That night, Nightline devoted a full 45-minute show to an hour-by-hour chronology of the Haiti crisis, and the decision-making process that led to the U.S. occupation. In the entire 45 minutes, nowhere did the words "United Nations" appear. Once having granted its before-the-fact approval of anything the U.S. might choose to do, the UN was utterly excluded from Washington's decisions about Haiti's fate.

When Dante Caputo resigned his post as the UN's special envoy to Haiti on September 19, 1993, he committed the unthinkable for a top U.N. official: he openly criticized the U.S., the organization's most powerful member state. "In effect," he wrote in his letter of resignation, "the total absence of consultation and information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makes me believe that this country has in fact made the decision to act unilaterally in the Haitian process."

His resignation marked a key juncture in the UN's involvement in Haiti. The organization had done little during the years that Haiti languished under the U.S.-backed family-military dictatorship of Papa Doc Duvalier and his successor son, Baby Doc. Haiti was understood to be central to Washington's sphere of influence, and the UN had been kept marginalized. Even when mass mobilization finally led to the end of Duvalier rule and the election of the popular priest, Father Jean-Bertrand Aristide early in 1990, the UN

also played relatively little role in assisting the fledgling government in dealing with the economic devastation that had for years made Haiti the poorest country in the western hemisphere and a lucrative center for U.S. manufacturing industries eager to exploit Haiti's pennies-a-day workers.

But when mass uprisings threatened the long-standing industry-friendly stability of Haiti, and brought Father Aristide to power, the U.S. realized its interests now lay in stabilizing the desperately poor country, insuring that U.S. economic interests were unaffected - whoever occupied the presidential palace. So when the Haitian army, many of whose officers had been trained by the Pentagon, overthrew Father Aristide, replacing him with a military junta, the U.S. allowed Aristide to wait out his banishment in Washington D.C.

During his more than two years of exile, Father Aristide became a rallying point for the anti-junta mobilization of the huge expatriate Haitian communities in New York, Miami, and elsewhere in the country. Simultaneously, his months of dispossession taught the populist priest the bitter realities of what his hosts would require to insure his return.

Caputo, a former foreign minister of Argentina, represented the United Nations in negotiations aimed at ending the military government's rule. He was the key architect of the UN-brokered Governor's Island Accord that achieved, in July 1993, the first commitment by the junta leaders to leave the island. But the Haitian military quickly reneged on their agreement to step down.

Further, they expelled the team of human rights monitors operating jointly under United Nations-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 auspices. While the monitors had been unable to prevent virtually any of the violence that wracked Haiti under the junta's rule, their presence ha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keeping public attention focused on the brutalit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continued unabated.

The U.S. role was ambiguous. Washington policy-makers officially supported Father Aristide and backed his return to Haiti, but the military junta was led by officers with a

long history of training by and continued connections to U.S. military and CIA institutions. And the U.S. itself was clear that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contain Haiti's popular movement, by force if necessary. The objective, in the words of one U.S. Army Psychological Operations official, is to see to it that Haitians 'don't get the idea that they can do whatever they want.'"

What the U.S. did want was minimal stability, just enough to insure economic viability for Haiti to continue as an off-shore factory labor pool for U.S. manufacturers. A World Bank plan was crafted in August 1994, imposing structural adjustment plans on the feeble Haitian economy. Implementing those plans could be most credibly carried out by Father Aristide - although that was not necessarily required. There were no illusions in the Pentagon: one military official asked rhetorically, "Who are we going back to save? ...It's not going to be the slum guy from Cite Soleil....It'll be the same elites, the bourgeoisie and the five families that run the country."

But while U.S. military officials may have been clear on their goals, the uncertainties of how to mesh those goals with "peacekeeping" realities quickly emerged. Fear of casualties and uncertainty about how much to risk led to a debacle at the harbor of Port-au-Prince. Under the terms of the Governor's Island Accord, a UN embargo against Haiti was to be lifted, in exchange for the creation of a 1,300-person international force to retrain the Haitian police, and the return of Father Aristide at the end of October. On October 11, the amphibious Navy ship U.S.S. Harlan County sailed towards Port-au-Prince, carrying the first contingent of UN police trainers.

Waiting for the armed navy ship were a few hundred supporters of the military regime, who fired their guns in the air and threatened a port-side riot. Although the port was largely empty of civilians, other than a small coterie of diplomats led by the U.S. charge d'affaires, no effort was made to challenge the pro-junta thugs. Instead, the Clinton administration immediately decided to turn the ship away from the Port-au-Prince harbor, causing a major UN retreat and ultimately providing Lt. General Raoul Cedras and his junta with another year in power.

U.S.-UN relations in Haiti continued to deteriorate. In late spring of 1994 the Council tightened the so-far largely cosmetic sanctions. (The impact of the sanctions on the Haitian population was not cosmetic, of course, except for the wealthy elite.) Once the sanctions resolution was ratcheted up, leading to potentially serious consequences for those in power in Haiti, Security Council talk immediately shifted to military options. On July 31st, U.S. diplomats won UN agreement to send a U.S. invasion force to Haiti to "Uphold Democracy."

...President Clinton spoke to the General Assembly a few weeks later, claiming that his administration supported "ready, efficient, and capable UN peacekeeping forces." But it was clear the U.S. had little intention of sharing power, resources, or operational decisions with the global organization, to allow the UN to become "ready, efficient, and capable."

Many Non-Aligned and other small countries retained strong memories of Washington's Gulf War unilateralism in 1990-91, and the UN Security Council, in unofficial response, crafted resolution 940 to endorse the coming U.S. invasion with the proviso guarantee of a UN oversight role in what was acknowledged to be a U.S.-controlled military move against Haiti.

New Zealand Ambassador Colin Keating believed the resolution reflected "the lessons picked up from the Gulf War." Keating, representing his country on the Security Council, had played a key role in the Council's debate, insisting on assurances of more active UN involvement. The day after Clinton told the Council that the U.S. invasion of Haiti was imminent, Keating described how "the resolution said the member states could use 'all necessary means,' but it also includes UN monitoring. The monitors will be on the ground even in phase one, 80 or so monitors deployed at the same time as phase one, and will stay in Haiti throughout phase two."

But Ambassador Keating's hopes were misplaced. Phase one was understood to be a non-UN military invasion, led by the U.S. but with enough troops from a few countries to provide a plausible cover of "multilateralism." The commitments of 23 countries to

provide token troops were announced with great fanfare by U.S. Secretaries of Defense and State Perry and Christopher, but a full week into the U.S. occupation of Haiti, not one soldier from Britain, Israel, the Caribbean states, or any of the other back-up contingents had yet set foot on Haitian soil.

As for UN human rights monitors, the first 16 were not even scheduled to arrive in Haiti until seven days after the U.S. troops landed.

As things worked out, of course, the U.S. invasion was transformed at the last minute into a no-shots-fired, more or less friendly occupation. Eleventh hour negotiations, accompanied by significant concessions, by former President Jimmy Carter convinced the junta to step down (though not requiring them to leave the country) and allow President Aristide to return.

Part of Special Representative Dante Caputo's anger stemmed from the nature of that compromise agreement negotiated with Cedras by the former president. The Carter agreement provided no guarantees that Cedras and the other military leaders would leave the island, did not disarm the military and police, mandated additional weeks in power for the military junta legitimized by "cooperation" with the U.S., and provided no date certain for the return of President Aristide. "It's so weak that the agreement could become a danger," Caputo told the New York Times.

If the overall responsibility for the Haitian crisis was truly an international matter, the UN should have responded when President Clinton announced he was about to send U.S. troops to Haiti. Especially since Clinton was justifying the U.S. invasion on the basis of the Security Council's permission, the Security Council should have gone into emergency session and issued a new mandate. Instead of relying on a former U.S. president, any last-minute diplomacy aimed at averting a potentially-bloody invasion should have been in the hands of the UN directly. The organization's highest ranking negotiator should have been sent back to Port-au-Prince with U.S. support. But the negotiator, Dante Caputo, and the UN as a whole, had already been cut out of Washington's loop. The special envoy's resignation also raised a fundamental question of

whether the UN had any control of, or even involvement in, the military actions it authorizes.

Phase two of the UN Mission in Haiti (UNMIH), the post-invasion UN peacekeeping effort, was supposed to be carried out by a truly multilateral UN force. But U.S. officials immediately began negotiating with the secretary-general to allow 70% of the troops and the commander of the UN Blue Helmets to come from the U.S. military. Boutros-Ghali was said to be outraged at the idea of such overt U.S. domination of a UN operation, but the eventual compromise still allowed about 40% U.S. troops.

As for the commander of the "UN operation" in phase two, Boutros-Ghali announced on November 15, 1994, that he had appointed U.S. Lt. General Daniel Schroeder as the Force Commander of UNMIH. But three hours before the secretary general declared his choice of Gen. Schroeder to the UN command, the Pentagon announced the appointment. And U.S. Ambassador Madeleine Albright issued a press release the same day, "welcoming" the announcement and noting smugly that the secretary-general had appointed Schroeder "at the suggestion of the United States."

Outlining the lessons of Somalia that it was "unfortunately too late" to apply to Haiti, one analyst described existing parallels. "In both cases, the United States long supported despotic regimes and watched passively as they eventually fell. Innocent people suffered and died during and after the transition. The tragedy for the two countries is that humanitarian relief and military reinforcement came so late. Preventive diplomacy was either insufficient or ineffective."

Certainly since the U.S. occupation and the transfer of authority to the "UN force," the rapes, murders, torture, and arbitrary arrests that characterized the junta's military rule in Haiti diminished somewhat, though they did not end. The World Bank's plan for Haiti, what the Financial Times in London called "Big Brother's Haiti Blueprint," brought the beginning of a return of U.S.-based manufacturing interests, and thus U.S. control of Haiti's economy to Port-au-Prince.

But Haitians continued to die of preventable diseases, Haitians still lacked basic education and health care, Haitians remained economically, if not absolutely politically disempowered and dispossessed. When President Clinton traveled to Haiti to oversee the transfer of power from the U.S. occupying force to the UN's phase two force led by [U.S.] General Schroeder, the Washington Post headlined the stark reality: "To Clinton, Mission Accomplished; to Haitians, Dashed Hopes." For Clinton, the Post said, "the Haiti mission was narrowly defined, and a success. The mission was to return Aristide and give Haitians time to begin to rebuild their battered nation..." But for the Haitians, hope of actual American help in rebuilding that embattled nation did not arrive. "The United States, burned by the Somalia experience, did not view its mission as ...anything else that smacked of 'nation building'...A primary concern here, American and Haitian officials said, was avoiding U.S. casualties." ...

The plan was that the U.S. forces would stay until the Haitian environment had been made "safe and secure." Then the UN mission would take over. An optimistic headline writer in the UN's October 1994 Secretariat News described a "Big UN Role" in Haiti during phase two. But the World Bank was now running the economic show, and U.S. General Schroeder commanded UNMIH's Blue Helmets.

By the time the U.S. allowed any serious involvement of the UN in Haiti, it was already too late for preventive diplomacy. Even as Presidents Carter and Clinton began their private political minuet, and U.S. marines packed their parachutes over Haiti, the UN was kept out of the frame.

The day after Clinton announced that a U.S. attack was imminent, the Security Council did not convene for urgent discussion over how to avoid the looming threat of military invasion and occupation. Instead, a Fellini-esque scene took over the UN. It might have been a production designed to mirror the hollowness of the UN's Washington-assigned role.

The invasion of Haiti was imminent. The Security Council actually was in closed session - but on an unrelated matter, not on Haiti. And it was Staff Day at UN headquarters, so

clowns, acrobats, and musicians filled the halls to entertain UN employees and their families. As U.S. planes carrying U.S. paratroopers streaked across the Caribbean sky, and as irrelevant Security Council discussions droned endlessly on, three confused but cheerful women wandered, virtually into the Council chamber before being stopped. "Isn't this where we can buy greeting cards?" one asked the bemused guard.